

01+02

2023 — Vol.62

미래로 가는 전남
농업



도전하는 청년농업인
전라남도의 내일을 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전남농업 E-Book



전남농촌교육농장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은 2014년 창간된 농업전문 매거진입니다.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발행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박홍재
편집인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편집책임자 원경영과장 김도익
편집기획 김병삼 박광영 이수영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화 061-330-2597
팩스 061-335-4199
홈페이지 www.jares.go.kr
발간등록번호 78-60000-000450-07
기획·제작 방형식디자인 02-2082-6388

Cover Story

‘과일 중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많으며 노화 방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배가 까다롭고, 수입산의 비중이 큰 편이지만 최근 국내 재배가 크게 늘고 있는 작목입니다.

국산 체리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체리의 ‘농가소득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의 체리 재배면적은 85ha로 곡성, 장성, 진도지역을 중심으로 240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을 통한 ‘농가소득화 모델’ 개발은 신규 농가의 작목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전략소득작목의 발굴과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CONTENTS

01+02
2023 Vol.62

來人寶友—RAINBOW



11	테마에세이	희망의 땅, 청년과 함께하는 전라남도
12	테마칼럼	청년농 3만 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16	테마인터뷰	담양군 '스마트베리팜' 서수원 대표
20	테마리포트	2023년 전라남도·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26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제26호 진도군 '주현 유기농장' 김주현 명인
30	주목, 여성농업인	강진군 '쥬도두맘' 홍여신 대표
34	청년 & 청년창농타운	화순군 '한걸음 농장' 김영준 대표
38	발굴, 수출농가	고흥군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40	농기원 사람들	전남,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에 도전한다

46	치U농장 체험	고흥군 '포두면 신촌마을'
50	마을기업 탐방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쥬)'
52	귀농·귀촌 길잡이	해남군, 귀농·귀촌으로 제2의 고향이 되다
54	세계로가는 K-농업	독일, 건강을 위한 자연식품 트렌드로 차(茶) 인기 상승
58	농UP테크	숙면효과 기능성 상추 '흑하랑' 산업화 추진
60	병해충정보	마늘·양파 병해충 방제

64	농업트렌드	관엽식물의 안전한 겨울나기
66	농업재정	전라남도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8	안전과 건강 365	농업인을 위한 겨울철 농작업 안전 지침
72	농업인교육	3월·4월 교육 일정
74	JARES 뉴스	
78	독자마당	

謹賀新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농업인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이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및 금리 상승은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에서 농업 분야는 식량안보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상승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 관련 기술개발 보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탄소 중립 감축 목표 달성 등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의 농촌진흥사업 방향을 8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농업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과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디지털농업 육성정책과 농산업 변화에 대응한 전남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농업 연구소를 설립, 디지털농업 R&D의 체계적인 추진과 현장 보급 확산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농기계와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형 노지 스마트농업 실증연구에 속도를 내고, 빅데이터 분야는 딸기·양파 등 12개 작목에 대한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급 예측 모델 개발 및 빅데이터 고도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남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창업의 밑거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신규로 7개소를 추가해 전국 최다 42개소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통한 성공모델을 육성·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농타운은 2025년까지 160개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분질미 산업 육성과 식량자급률 향상 기반 조성입니다.

최근 10년간 쌀 재배면적은 매년 1.5% 감소 추세에 있으며, 쌀 소비량도 2.2% 감소해 쌀 수급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쌀 공급과잉 해결방안으로 분질미 산업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분질미 품종인 '바로미2'의 안정적 종자 공급기반 구축과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쌀가루 가공 소재화와 제품개발을 위해 도내 제분·가공 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분질미 소비기반 강화를 위한 즉석 판매식품 제조가공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전남 우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지역특화 소득품목 육성입니다.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세계 종자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농작물 종자 소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종자 수입대체와 자급률 향상에 목표를 두어 벼, 양파 등 15개 작목의 전남에 특화된 우수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마늘 우량 묘 생산을 위해 주산지 시군에 씨 마늘 전문생산 농가를 육성하고 양파 국산 신품종 종자 생산기술 실증과 생산단지 구축을 위해 무안·함평 등에 100ha 규모의 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작목은 지난 해에 수립된 지역특화작목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선정한 유자, 흑염소, 커피, 무화과 등에 대한 6차산업 소득화 모델 개발을 산·학·연 협업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체감형 기술개발 확산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축산냄새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단위 축산 냄새저감 복합기술을 2개소에서 실증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을 10개소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우량 한우 및 흑염소 품종 개량과 축사관리 자동화 등으로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농식품 국내판매 활성화와 수출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전남의 우수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새로운 유통처 개척과 신품종 신기술 도입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해 소비자 대상 테스트, 유통MD 초청 품평회와 판촉 행사를 추진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의체를 육성해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과 유통기술을 지원하여 전남 농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저감 기술개발과 보급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 신청 농가 5,445호에 작물 생육단계별 기상 위험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환경 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돌발병해충 대응 기술 개발과 예찰포를 운영하여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료절감, 바이오차 기반 양분관리 등 저탄소 유기재배 기술을 패키지화해 지속 가능한 안전농업 실현을 위한 전남 농경지 농업환경지표 변동평가, 유해인자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농산자원 이용 메디푸드 가공제품개발과 치유농업센터 조성입니다.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병 유행으로 면역력 향상 제품과 가정편의식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간편식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국 생산량 1위 품목인 양파, 토란, 차(茶) 등을 이용한 메디푸드 소재화와 가공제품 다양화를 추진하고 차(茶) 소비 촉진을 위한 RTD형 음료 대량생산 기술, 유자 액상차 등 면역력 증진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단위 치유농업 전담 거점 기관 치유농업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치유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과 직원들의 열정으로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도 전남 농촌진흥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농업기술 개발 보급 사업을 추진해 농업인이 더 편하게 농사짓고, 더 돈 버는 농업으로,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

RAINBOW

농업來미래

테마에세이

희망의 땅, 청년과 함께하는 전라남도

농업인구의 감소, 여기에 심각한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농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려면 농업만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청년이 지속해서 농촌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책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와 역량 있는 청년에게 전라남도는 기회와 희망의 땅입니다. 귀농을 꿈꾸는 청년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청년농업인과 함께하겠습니다.

Special Theme

- 11 테마에세이 | 희망의 땅, 청년과 함께하는 전라남도
- 12 테마칼럼 | 청년농 3만 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 16 테마인터뷰 | 담양군 '스마트베리팜' 서수원 대표
- 20 테마리포트 | 2023년 전라남도·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청년농 3만 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선임연구위원



우리 농촌은 농가의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농업경영주 중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수는 2010년 33,143명에서 2020년 12,426명으로 연평균 9.3%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경영주 수는 451,758명에서 579,319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별다른 대책이 없이 방치된다면 청년농업인의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 농업경영주 중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수는 2025년 7천 6백 여 명, 2030년 6천 3백여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청년농 육성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청년농 유입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추진해오던 기존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더해, 2018년에 프랑스(DJA), 일본(신규취농금부금) 등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40세 미만 신규 취농하는 청년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취농 후 3년간 월 100만 원 수준)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현재 1% 수준인 청년농 비율을
2040년 10%까지 높인다는
야심 찬 목표로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중점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의 성과로 8천 6백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농촌에 정착하였다. 이로 인해 점차 청년농 감소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56.6%이던 청년농 감소 추세가 2015~2020년 기간 -13.5%로 둔화된 것이다. 이는 비록 작은 수치의 변화이지만 농가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아니고, 우리의 정책적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현재 1% 수준인 청년농 비율을 2040년 10%까지 높인다는 야심 찬 목표로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중점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법률(후계·청년농 육성법)에 기반하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계획(2023~2027)의 본격 추진이 예정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청년농 전담조직을 신설한 점도 획기적 변화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정책의 틀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

‘더 많은’ 후계 청년농 지원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확대,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보다 ‘쉽게’ 농지·자금 확보 지원	- 농지공급 규모 확대, 다양한 농지공급 방식 도입 - 융자조건(상환기간, 금리) 개선, 정부 직접투자 펀드 조성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뒷받침	- 성장단계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제공 -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 임대주택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 농촌공간 정비, 지역단위 연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도시의 청년 고용사정 악화, 위라벨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확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저밀도 농촌 지역 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은 농업 인력 확보 차원에서는 기회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농 육성 종합 지원계획에서는 기존의 청년농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난 2022년 10월 후계농 자금 지원 조건 개선, 영농정착지원금 대상규모 확대(연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및 지원금 상향(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농지은행 매매·임대 지원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제공,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지원 및 청년농촌보급자리 확대 등의 개선안을 1차로 발표하였다.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면도 있다. 추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영농 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예비 청년농'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농 초기와 마찬가지로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의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경영체 시작 전 준비단계와 경영체 창업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준비단계에서 지역에서 인정한 농업법인, 농가, 지자체 연수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등록하여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농산물 판로를 고민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자본 없이도 농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게 취업의 형태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로 청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고령농들을 도와 유희 농지와 농업 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농업경영체나 기관에서 영농 준비를 하는 이들 청년들은 '예비 청년농'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농 초기와 마찬가지로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농의 지역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지, 자금, 기술지원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정착과정에서의 각종 애로 사항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농어촌공사, 지역의 농업법인, 농민단체 등 관계자들의 연계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농 유입의 풀을 확보하려는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청소년 시절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농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체계적 농어업 교양교육 체계를 갖추고, 개별기관에서 진행되는 관련 교육(식생활교육, 학교텃밭, 농어촌인성학교, 농촌교육농장 등)을 전문화, 체계화 하며 학생 4-H와 같은 청소년 학생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 숙소와 일을 제공하여 농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점차 농업이 생활과 멀어지는 요즘과 같은 디지털시대에, 어린 시절부터 농업·농촌에 대해 아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잠재적 농업인 풀의 확대와 더불어 농업의 중요성을 아는 든든한 정책 지지자가 좀 더 많이 확보될 것이다. ☺



투명하게 반짝이는 청년의 붉은 꿈

담양군 '스마트베리팜'
서수원 대표

글·사진 | 정환정 작가



꿈을 가지라는, 기왕이면 큰 꿈을 가지라는 격려가 더 이상 청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처럼 공고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청년들의 희망을 더욱 작게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 그런데도 누군가의 커다란 꿈은 결실을 맺고 있다. 2018년 '스마트베리팜'을 설립하고, 지난 2022년 12월 '농업인과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현장활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서수원 대표처럼 말이다.



재배를 결심하고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자

서수원 대표의 원래 꿈은 과학교사였다. 자연계 전공을 선택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원예학, 그중에서도 시설원예학이었어요. 농학 박사인 아버지 덕분에 오래전부터 농업과 식물, 작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사람이 정성과 관심을 쏟는 만큼 자라나는 작물 재배 현장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서 대표는 “농업 역시 상당한 기술과 연구, 과학적 판단이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스스로 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연구에 참여했기에 더욱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었다. 작물이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살펴온 서 대표가 지금의 '스마트베리팜'을 설립하기로 결심한 것은 2016년 무렵. “어떤 연구든 결국은 현장에서의 개선, 혹은 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업 역시 예외일 수는 없지요. 이런 새삼스러운 자각이 연구실 밖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자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언젠가는 직접 농업 현장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한 결심과 함께 선택한 작물은 딸기.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연구 대상이었을뿐더러 수요가 꾸준하다는 사실도 무엇보다 큰 강점이었다. 하지만, 이제 막 현장으로 나선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한 큰 결심

서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도전했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돕기 위해 개인당 10억 원을 자부담 없이 100% 대출 해주거나, 1%의 저금리로 30억 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연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다. 타당성 있는 세밀한 사업계획서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다. 청년농 자격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준비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8년, 30억 원의 대출이 서 대표를 위해 실행되었다. “대출금은 모두 유리온실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설 재배가 아닌, 천장의 와이어에 매달린 배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잉 거터 형태로 딸기를 키우는 중이고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유리온실과 행잉 거터. 우리는 일반적인 투명 유리가 아닌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선택했다. 자외선으로 인한 고온현상을 막는 등 외부환경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할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광 투과율은 일반적인 합성수지 소재에 비해 탁월하게 높다. 빛은 딸기 생육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요소.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유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스마트 베리팜’은 일조 시간에는 이산화탄소까지 추가로 투입하며 광합성 효율을 높이고 있어 일반적인 딸기 재배 시설에 비해 180% 정도 더 높은 생산량을 자랑한다. 국내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는 딸기 농장인 셈이다. 행잉 거터는 동일한 면적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재배 시설. ‘스마트 베리팜’의 실제 면적은 약 1만㎡이지만, 행잉 거터 덕분에 두 배 가까운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설비들이 아니라는 점을 서 대표는 몇 번이나 강조했다. “이제는 스마트팜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신기하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팜 시스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 믿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곳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스마트팜의 시스템 만으로는 결코 성공적인 농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 대표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은 두 시간이면 모두 익힐 수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 시스템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온습도와 일조량, 양액 투입량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향후 변화할 환경에 맞춰 어떻게 조절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고 지적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딸기에 관해 연구를 해왔던 저 역시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기는 굉장히 예민한 작물이예요. 특히 햇빛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상당히 달라 지는데, 운영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이번 작기에 이르러서야 최상의 효율을 찾았을 정도거든요.”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 덕분에 서 대표는 지난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스마트 농업 현장활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스마트팜 운영 성과가 많은 농업 현장의 귀감이 될 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연구실이 아닌 현장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그의 목표가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했다.

전국으로 향하는 ‘스마트베리팜’

‘스마트베리팜’의 딸기는 지난해부터 거의 전량이 대형마트에 납품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딸기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스마트팜의 핵심가치는 외부환경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요. 기온과 일조량, 강우량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항상 작물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운영 목적인 셈이죠.” 운영 초기, 예상했던 만큼의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벅장 끝으로 몰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는 서 대표. 그는 작물 생장에 가장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작물의 작은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 정확한 판단을 위한 필수조건은 다름 아닌 오랜 경험. 즉,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인 경험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스마트베리팜’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내년보다 더 나은 후년을 바라 보고 있었다. 아직은 생산량이 모자라 남부 지방의 대형마트에서만 만날 수 있지만, 향후 시설 확장을 통해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스마트베리팜’의 달콤한 딸기가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만드는 것이 서 대표의 목표이다. 그의 꿈은 수많은 변수를 차단하고 보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쉽 없이,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2023년 전라남도·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맞춤형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출처 | 전라남도청 농업정책과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국]

목적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급하여 청년농의 초기 영농정착 유도, 고령화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
- 지원내용: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차등지급(최장 3년)
-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
- 자금용도: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생활비)

2.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지원 [전국]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영농창업 및 규모 확대 등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액: 1인당 최대 5억 원
- 재원: 국고융자 100%(5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5%
※현행 연리 1.5% 중 0.5% 이자차액 3년간 지원
(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 사업내용: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영농창업 및 규모 확대 사업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내인 자, 농업교육 이수자 및 농과계열 학교 졸업자

3. 학사농업인 육성 [전남]

목적

- 대학을 졸업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

사업개요

- 지원액: 1인당 최대 2억 원
- 재원: 융자 100%(도 농어촌진흥기금)
- 융자조건: 연리 1%
(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사업내용: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과원조성 등
- 지원자격: 도 내 거주하는 50세 이하자로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 농수산계열 대학 졸업자,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농수산계열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 [전남]

목적

-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농장 조성
- 청년(예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농업시설 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 해결

사업개요

- 지원액: 개소당 25,000천 원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내이면서 농업 교육 이수와 농과계열 학교를 졸업한 자
- 사업내용: 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신규 시설 설치비용 또는 개보수 비용, 시설 1년 임차비(농지 포함)

5.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운영 지원 [전남]

목적

-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자발적 연구 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향상 기반 마련

사업개요

- 사업규모: 32개 동아리
※지원단가: 2,500천 원/팀당
- 사업비: 80백만 원(도비 20, 시군비 60)
- 지원대상: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12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 지원내용: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 활동 등

6.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전남]

목적

-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업·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매매(임대) 활성화 유도

사업개요

- 사업량: 160명, 80ha
- 사업비: 192백만 원(도비 48, 시군비 144)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 18~40세)과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 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 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글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김민수, 강상구 지도사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청년4-H연합회는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인 학습 단체로,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학습활동을 통하여 지도력 배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농업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4-H 과제활동 지원과 더불어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을 선도하는 4-H 청년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진방향

- 공모(청년4-H 과제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회원 성장기반 지원
- 농촌의 공동체를 지키고 첨단 농업기술 표준화·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 청년농업인 기술농업 및 융복합 농산업 지원으로 영농환경 안정성 제고

사업내용

- 사업량: 16개소(나주 1, 담양 1, 곡성 1, 구례 2, 화순 2, 장흥 1, 해남 2, 영암 1, 무안 1, 영광 1, 장성 2, 진도 1)
- 사업대상: 청년4-H회원(도 단위 4-H 과제공모 선정)
- 사업비: 800백만 원
- 지원내용
 - 과제공모에서 선발된 청년농업인 사업의 모델화 지원
 - 신기술 투입 생산기반 및 가공, 유통, 체험장 등 조성 지원
 - 보조사업 중복지원을 고려하여 경상보조 사업, 또는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
 - 단순 영농기반 자산증식 관련 항목 지원 불가(토지, 가축, 건설용 기차재, 단순 농기(자재) 등)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4-H회원 육성
-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농업 모델 발굴·확산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성장지원사업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성장지원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으뜸 청년농업인에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자원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진방향

-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6차산업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 사업 추진
- 생산, 가공, 체험, 유통, ICT 등 6차산업 기반조성으로 농업소득 향상

사업규모

- 사업량: 5개소
- 사업비: 140백만 원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2023년도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공모선정
 - 대상(45백만 원), 최우수상(35백만 원), 우수상 3(각 20백만 원)
 - ※청년4-H회원의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부여

사업내용 및 시범요인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사업 중점 지원
- 성공모델 우수사례 보급 및 홍보 교육장, 장비구입, 체험시설 등

행정사항

2023년도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사업대상자 선발: 3월
2023년도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사업지원 계획서: 4월
2023년도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사업지원 추진결과보고: 12, 10.





인: ——— RAINBOW ——— 농업人사람

“먼 곳으로 향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갈 수만은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 것인가.
고난이 심할수록 나의 가슴은 뛰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극복하고 계속 나아가
끝내 기쁨의 목적지에 다다른 한 해이기를 응원합니다.

Index

26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제26호 진도군 '주현 유기농장' 김주현 명인
30	주 목, 여 성 농 업 인 강진군 '췌도두맘' 홍여신 대표
34	청년 & 청년창농타운 화순군 '한걸음 농장' 김영준 대표
38	발 굴, 수 출 농 가 고흥군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40	농 기 원 사 람 들 전남,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에 도전한다

유기농에 이름을 걸었습니다

‘부전자전(父傳子傳)’.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등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하다는 뜻이다. 지난 1984년 진도에 정착한 부모님은 당시에는 생소했던 유기농업을 전파하셨다. 곁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일평생 친환경농업을 고수하신 부모님의 삶을 지켜보았던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농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커져 있었고, 결국 승계를 결심하였다. 그 아들이 바로 2021년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제26호’로 지정된 김주현 명인이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1번지’인 전남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친환경 교육 실시로 전남의 유기농업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유기농명인을 지정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유기농명인을 소개합니다.

유기농업, 가업(家業)이 되다

“아버지는 1970년대 홍성 풀무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풀무원공동체와 정농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진도로 이주한 후 부부가 평생 유기농업에 전념하셨지요. 저는 부모님의 삶을 보며 귀농을 결정 했습니다. 땀 흘리며 정직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신념으로 행동하는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2011년 어머니께서 작고하신 후 가업 승계는 저에게 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김종복, 장금실 부부의 넷째 아들인 김주현 명인은 경기도 풀무원공동체 에서 유년시절을, 진도에서 초·중학교를 다니며 소년시절을 보냈다. 1997년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친환경 유통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진도로 돌아와서 부모님의 유기농업을 이어받았다. 귀농 후에는 부모님의 유기농업 노하우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한편으로는 한살림공동체, 가톨릭 농민회 활동 등 친환경농업인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부모님이 진도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하셨던 1984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이었지요. 처음에는 오리농법으로 유기농 수도작을 하셨는데, 진도에 있던 일본계 종자회사의 채종포를 보고 월동무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땅의 힘을 믿고 종자를 바꿔가며 유기재배 실험을 계속한 끝에 부모님은 결국 생산에 성공하셨습니다.”

진도는 비교적 따뜻한 섬이기에 월동배추 등 겨울 채소류의 재배가 가능한 곳이다. 월동무는 겨울에도 자라는 무로,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채소가 귀하던 한겨울에도 맛볼 수 있어 예로부터 겨울철 별미로 꼽힌다. 그렇게 김 명인은 부모님과 함께 본격적인 유기농 월동무 재배를 시작하였다.



월동무, 노지에서 재배하다

진도군 군내면에 자리한 주현 유기농장. 자신의 이름을 걸 만큼 자신 있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김 명인이 지은 농장명이다. 유기인증면적은 32,129㎡이며, 유기인증 20개 품목 중 월동무, 울금, 무시래기, 늙은호박, 무말랭이, 단호박 등이 주요 출하작물이다. 저온창고 60평, 단순가공처리 및 포장시설 40평, 농산물건조시설 20평, 소나무숲 무시래기 덕장시설 300평 등의 시설도 갖추었다.

“농산물만 단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융복합농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장, 단순가공, 건조, 포장 등 시설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끊임없이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분, 쌀겨, 깻묵을 혼합해 썩혀 만든 자가 제조 퇴비와 농장에서 생산한 잉여농산물로 자가 제조 액비를 만들어 땅의 비옥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명인만의 유기농업 노하우는 무엇인지를 묻자, ‘월동무를 비닐 멀칭 하지 않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방법은 파종 시기가 적절해야만 가능한데, 진도에서는 9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가 적기라고 한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생산원가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일거양득(一舉兩得)이다.

“1984년부터 유기농업을 해왔던 땅에서 자란 주현 유기농장의 월동무는 제주를 제외한 육지의 노지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월동무입니다. 인위적인 조건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추위를 견디는 대단한 무인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조직이 단단하며 아삭거림이 좋아요. 또한, 당도가 뛰어나서 사과나 배처럼 깎아 먹기 위해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주현 유기농장의 유기인증 작물은 한살림, 두레생협, 초록마을, 선농생활, 설악산그린푸드 등 생활협동조합이나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진도군 첫, 유기농명인이 되다

2014년 유기농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명인은 바른 먹거리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진도군에서는 처음으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에 선정되었다.

“진도군의 유기농업 활성화와 아직 유기농명인 배출을 못 한 시군에 모범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유기농명인의 품위에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사실 부모님 세대에는 관행 농업인이나 공무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후변화, 인력난, 인건비와 물가상승, 판매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김 명인은 지적하였다.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기농업인 최저 생계비 지원제도, 농업·임업 등 공익형 산업 지원제도 등의 제도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그래서 유기농업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 명인의 생각이다.

“유기농업으로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고소득 창출이 실현되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친환경농업인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요.”

농사는 출퇴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물네 시간 온종일 마음을 쏟으며 작물들과 대화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던 아버지의 말씀을 김 명인은 좌우명처럼 마음 한쪽에 각인시켜 놓았다. 추위를 이겨내고 성장하는 월동무처럼, 앞날에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김 명인은 정성을 다해 소통하면서 이겨낼 것이다. 다시 보니 부자(父子)는 웃는 모습조차 똑 닮았다.☺



주현 유기농장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군내로 813



강진 작두콩차, 세계인의 입맛에도 딱!

강진군 '작두맘' 흥여신 대표



전라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편입니다. 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을 소개합니다.



작두콩은 콩깍지의 모양이 작두와 흡사하다고 하여 '도두(刀豆)'라고 불린다. 16세기 중국 명나라의 이시진이 펴낸 약학서 <본초강목>에서는 작두콩이 '장과 위를 보호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신장 기능 증진을 돕는 약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약재로 사용해 온 작두콩을 소재로 작두콩차를 연구·개발 및 판매하는 곳, 바로 흥여신 대표가 운영하는 '작두맘'이다.



혼자서 강진에 덜컥, 집부터 마련

도두맘이라는 이름에는 3가지 뜻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도깨비가 두고 간 맘', 두 번째는 작두콩의 한자 '칼 도(刀), 콩 두(豆)', 마지막 세 번째는 '작두콩의 엄마'라는 의미이다. 흥여신 대표가 남편(송용기 씨)과 함께 지난 2015년 8월 강진군으로 귀농하여 처음 지었던 농장의 이름이 '도깨비농장'이었다. 2020년 농업회사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도깨비'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싶어서 작명한 것이 '도깨비가 두고 간 맘', 그러니까 '도두맘'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 유통회사 홍보부장으로 정말 치열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어섰고, 직장생활이 어려운 자경까지 되었지요. 취미가 사진 찍기인데, 그 무렵 월출산의 일출을 찍으려고 왔다가 강진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건강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산과 바다, 들, 강이 모두 한곳에 있는 강진으로의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귀농을 상의하기도 전에 흥 대표는 일단 강진에 집부터 마련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귀농이냐며 반대했지만,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서울 생활을 접고 시골로 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이 최우선이기엔 내린 결정이었다.

"남편한테 강진으로 여행 가자고 한 뒤 빈 농가에 데리고 왔던 때가 생각 나네요. '이 집 어때?'라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시골집이 다 그렇지' 무심히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집, 우리 집이야'라고 했더니 당황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때부터 부부는 차근차근 귀농준비에 들어갔다. 2025년까지 매출액 5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귀농 10년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로스팅 기법을 활용한 고품질의 작두콩차

농사 경험이 부족했던 부부에게 귀농 초기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귀농 첫해와 이듬해인 2016년에 도전했던 자색양파와 그라비올라, 마키베리 재배는 투자 비용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을 정도로 대참패를 당했다.

“그때의 실패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친환경농업을 목표로 했기에, 농사를 기초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실용유기농, 농산업창업가공, 글로벌농식품판매전문가 양성 등 도움이 될만한 교육은 전부 참여했거든요. 그 덕에 강진군 부부 유기농기능사 1호, 강진군 부부 팜파티플래너 1호 등 다양한 자격증과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요.”

작두콩을 썰어서 말린 상태로 밀봉하면 저장성이 좋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2017년 ‘작두콩 연구회’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작두콩 재배에 들어갔다. 깨끗하게 씻어 말린 뒤 튀으면 되는 작두콩은 수요가 높아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한 작물이다. 현재 ㈜도두맘에서는 주 작목인 작두콩으로 만든 ‘바리스타가 로스팅한 마법의 블랙’ 작두콩차, 작두콩차 티백, 이로빈 작두콩 스틱형 액상차(일반용·어린이용) 등을 생산하고 있다.

“친환경 무농약 인증과 GAP 인증을 받고, 2018년 중국의 최대 쇼펍몰인 알리바바에 입점해 2019년 매출 2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2020년에는 미국 아마존의 ‘전남 명품 브랜드관’에 입점하여 3만 달러, 2021년에는 유럽 아마존에서 3천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국가대표 작두콩차’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을 통해 강진의 작두콩차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도두맘 제품은 지역 로컬푸드 마켓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온라인에서는 자체 쇼펍몰(www.dodumam.com)이나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kangjinae1004)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확신이 경쟁력

홍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작두콩차 입력 시 판매하는 업체가 39,668개나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두맘 제품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저희는 농약 대신 미생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EM농법을 고집하고 있어요. 특히 장어 아미노산액비는 특허까지 받은 도두맘의 자랑입니다. 10월에 가장 영양이 풍부한 장어를 최소 6개월 이상 발효시켜, 뼈까지 녹아버린 친환경 액상비료를 만들지요. 이것을 매주 2회 이상씩 작두콩에 엮면시비, 또는 관주 해서 재배합니다.”

EM농법은 천연 재료를 발효시킨 후 그 발효액을 물에 희석하여 땅에 주입하는 친환경농법의 한 종류이다. 홍 대표는 농약과 제초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영양제 및 살균·살충제 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발효액은 작두콩의 맛과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 홍 대표의 노력은 2020년 ‘제35회 한국 신지식인(농업 분야)’ 선정으로 이어졌다.

“강진에 와서 도움받은 만큼 저도 나누어야지요. 그래서 농업인과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재배기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귀농 전 홍보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와 포토샵 강의 등 온라인 마케팅에 관해 미력하나마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강진군도서관에 2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몸에 좋은 작두콩차처럼, 책을 통해 지역주민이 더욱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온 기증이다. 홍 대표의 향후 계획은 ‘㈜도두맘’을 강진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 ‘도깨비가 두고 간 마음’은 포기나 거짓을 모르는, 건강하고 넉넉한 마음이기에 머지않아 실현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그날을 위해 작두콩차로 미리 축하를! ☺





목표를 향해 ‘Step By Step’

화순군 ‘한걸음 농장’ 김영준 대표



청년창업타운은 청년을 비롯한 도민이 농업농촌과 연계한 2·3차 산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곳으로, 전라 남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실습형 공간입니다. 비즈니스 로서 농업 창업을 활성화시킬 청년창업타운 입주 회원을 소개합니다.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전남 대학교 공대생이던 김영준 대표에게는 3번 중 1번의 기회가 군대에서 화단 만드는 작업을 통해 찾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농업에 새로운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침 그 무렵, 부모님이 화순으로 귀농을 결심하셨고 전역 후 자연스럽게 영농 생활을 경험하면서 김 대표 역시 귀농을 결정하였다. 농업에 비전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 대신 선택한 청년농부의 삶이었다.

패션푸르트는 미래를 내다본 투자

다행히도 공대생 아들의 ‘농사짓겠다’라는 결정을 부모님은 흔쾌히 수락하셨다. 농사경험이 미미했던 김영준 대표는 2018년 영농 기술을 배우기 위한 공부부터 시작하였다. 농사 고수이신 주변 어른신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지문을 얻었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농업인 교육을 통해 작물 재배부터 판매까지,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배웠다. 그리고 2019년 농촌진흥청과 화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후 변화대응 아열대작목 패션푸르트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귀농 후 첫 도전이 국내에서 생소한 아열대작목인 패션푸르트였으니, 사실 무모할 만큼 큰 도전이었지요. 그런데도 패션푸르트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름이 점점 아열대기후로 변화하고 있어서 미래를 내다본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패션푸르트도 처음이라서 당연히 어려움이 많았다. 첫 재배는 병해충과 냉해로 피해가 컸지만, 지금은 1년에 2작기 재배하는 데다가 판로까지 확보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2023년도 농촌 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공모’에 ‘1인 가구를 겨냥한 고급화 과일 상품 개발’이라는 사업 아이템으로 참여하여 선정되는 기쁨도 누렸다.

“해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다양한 과일을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를 겨냥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패션푸르트, 복숭아, 체리 등 제가 키우는 과일이 사계절에 걸쳐 생산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과일을 꾸러미로 묶어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청년창농타운에서 완성할 개발사업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귀농 후에 보여주었던 김 대표의 행보는 '한걸음 농장'이라는 농장명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청년농부라서 경험이 부족하므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였다.

“설 이후부터 패션프루트가 생산 중이고, 5월부터는 체리와 복숭아, 사인머스켓이 순차적으로 나와서 이 과일들을 꾸러미로 묶어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온라인이나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어요. **예약주문**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인스타**(www.instagram.com/han_goaltong)나 **블로그**(m.blog.naver.com/kyjh0901)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처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기세가 좋을 때 더 힘을 가해야 하는 법이다. 김 대표의 '한걸음 농장'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2023년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2023년 청년창농타운 입주 또한 결정되었다.

“지난해 청년창농타운에서 가공기계 실습과 교육을 받았는데 아주 유용했어요. 입주하면 제가 계획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더 많은 교육과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지요. 앞으로 청년창농타운에서 고급화 과일 상품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묘목 개발사업도 진행해보려 합니다. 전라남도에 부족한 묘목시장을 겨냥한 사업이에요.”

김 대표는 화순군의 청년농업인들과 '통'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 중이기도 하다. 생산하는 품목은 다르지만, 일손이 필요하면 서로 돕기도 하고 플리마켓 행사나 콜라보 상품을 함께 진행한다. 혼자 하는 농업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농업을 꿈꾸면서 실천하고 있는 청년농부들. 김 대표와 같은 청년이 있기에 전라남도, 아니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

‘청년창농타운(J-farm Startup Town)’ 안내



글 | 농촌지원과 청년창농기술팀 정현철 팀장, 최지현 지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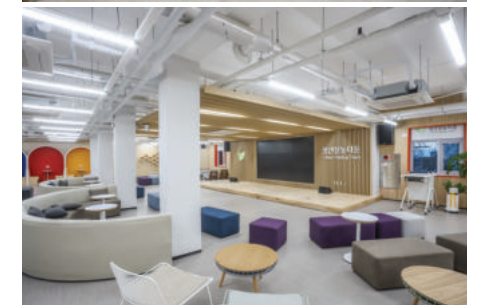
청년창농타운 운영 프로그램

▶ **청년창농타운은 미래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및 농산업의 고부가가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창의적인 창농 단계별 성장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로 창업 아이템을 다양화하기 위해 창농교육, 장비지원, 사업지원 등이 제공된다. 농업·농촌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모델 육성을 위하여 창농교육 프로그램 10과목 4회로 진행되며, 단계별 교육과 행사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창농타운 회원 중 가공 관련 필수교육 이수자는 130여 종의 가공 장비가 있는 제품지원센터 이용이 무료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모사업 심사를 통해 매년 50명 내외, 1인당 5천만 원을 지원한다.

▶ **청년창농타운은 창농 단계별 전담코칭·유통판로·투자유치를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창농활성화 및 창농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밀착형 One-Stop 멘토링을 지원한다. 담임 멘토를 매칭시켜 창농활동 지원 및 실적관리와 식품가공 전문가를 통한 레시피 개발에서부터 공정설계, 브랜딩, 패키징까지 상시 멘토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발한 제품의 유통·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협업 기관과 협력하여 쇼핑몰 판촉행사,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MD 품평회, 창업콘테스트, 워크숍 등을 지원한다.



청년창농타운 참여방법

▶ **청년창농타운은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회원제로 운영된다.**

회원가입은 창농타운 누리집(cntown.kr)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창농타운 회원으로 가입하면 창농교육, 가공실습교육, 장비사용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창농타운 지원사업, 협업기관 창업지원, 금융지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청년창농타운 입주회원은 매년 말에 전라남도 소재 창농 7년 이하의 기업, 또는 예비창농자를 대상으로 기업 50 곳을 모집하며,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입주회원에게는 입주공간 및 기기, 창농활동에 필요한 공간, 장비사용, 교육, 행사 등을 지원한다. 청년창농타운에서 청년농업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 제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와 나아가 청년농 우수 모델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유자,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하다

고흥군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유자는 과육과 과피 조직에 혈관·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면역력 관리에 중요한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 함유**되었으며,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유기산의 경우 레몬이나 매실보다 함유량이 많다.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이중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유자 생산국이다. 전라남도 대표 특화작목이기도 한 유자는 탁월한 면역력 증진 효과를 인정받아 베트남, 미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유자산업 발전을 위해 나선 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20년 5월 13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유자 신제품 연구와 수출 확대를 위해 고흥군 소재의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수출 유자 품질 균일화를 위한 우량 품종 선별 보급 및 특성평가 연구, 시범재배 등을 함께 수행하고,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을 통하여 수출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후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유자즙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유자박을 원료로 한 '유자박 크런치'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하고 있다. 유자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유자과육이 씹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유자 특유의 향과 맛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보유한 유자 동해 피해 경감기술과 '유자 갈변방지 조성물 및 갈변방지 방법'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다양한 제품 생산에 적용 중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의 우수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수출확대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도 내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과 유통기술을 지원받아 수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소개합니다.



친환경 유자·석류 전문가공기업,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1998년 고흥의 대표작물인 친환경 유자를 재배하는 에덴농원으로 출발하여, 2007년 유자의 부가가치 향상과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미국, 유럽, 중국, 영국, 독일 등지로 유자즙과 유자과피 등을 수출한다. 2014년 중국 수출 3천 달러를 시작으로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2년 수출실적은 약 7억 5,000만 원을 달성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농촌진흥청이 수출경영체 우수사례 및 수출지원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2 농식품수출 기술 지원 성과확산대회'에서 가공식품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바른 먹거리, 자연이 준 소중한 먹거리'가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의 슬로건이며, 소비층의 다양화에 맞추어 유자즙, 유자차, 유자파워, 유자원액, 유자씨오일, 유자소금, 유자크런치, 석류즙, 석류차, 석류 크런치 등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판매한다. 특히 '유기농 유자주스'는 전라남도가 미국 온라인 시장인 아마존에 개설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2021년 11월, 22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에 입점하여 2022년 2월에는 미국 샌디에이고 등 80개 코스트코 매장에 유자주스 42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농장주이기도 한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송재철 대표는 수출시장 점유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HACCP-9000, ISO22000, FSSC22000 등 국내외 유기농제품 인증 획득과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춘 시설 현대화로 품질뿐 아니라 위생관리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제품은 자체 쇼핑몰(www.edenfood.kr)에서 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다.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연강예회길 311
고객센터 | 061-834-1003



아마존 입점 상세 페이지



미국 코스트코 매장 판매



● REC



전남,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에 도전한다

글 | 자원경영과 농업정보팀 김병삼 팀장, 김효중 연구사

00:23:12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의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과학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등의 농촌진흥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전남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원 사람들의 직무 전반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1992년부터 국내 쇼핑 시장이 생겨나고, 2005년 전후로 온라인쇼핑몰과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8조 원 이상의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 PC 중심으로 형성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스마트폰 확산, 소셜미디어 발달과 함께 이커머스 시장으로 크게 발전하여 통계청 기준 2016년에는 65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2025년까지 약 270조 원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새로운 농식품 마케팅의 필요성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농산물 유통의 틀도 점점 바뀌고 있다. 상품의 가격보다는 소가죽에 맞는 소량, 소포장 위주의 쇼핑,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쇼핑 등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특히 물류 배송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커머스 시장확대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배송시간 신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식품 온라인 유통도 쿠팡, 마켓컬리의 등장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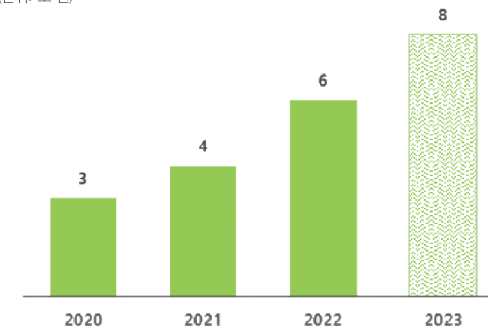


라이브커머스의 등장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비대면 구매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이커머스로 다양한 IT기술개발과 함께 더욱 발달하였다. 그리고 발전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전략이 등장하였다. 라이브커머스는 'Live Streaming'과 'Commerce'의 합성어로, 실시간으로 양방향 화상과 댓글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온라인 구매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소비자의 콘텐츠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과 유사하게 생생한 쇼핑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시장 전망은 2022년 기준 6조 원에 달하며, 2023년 올해에는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시장 전망

(단위: 조 원)



(참조: 통계청)



전남,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라이브커머스 전문교육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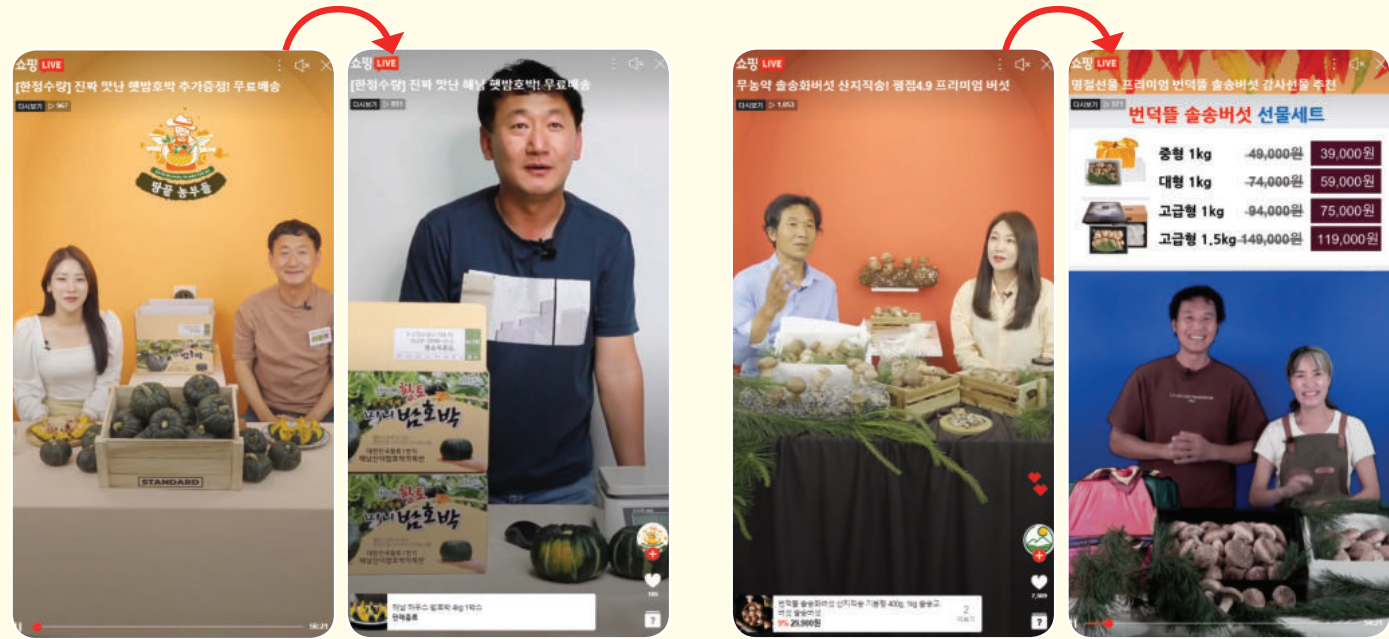
농식품의 거래방법은 과거 도매시장 중심에서 직거래나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은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적응 또한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식품에 대한 판로확대 및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교육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온라인스토어 개설과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곧바로 실전에 적용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직접 쇼호스트와 함께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라이브커머스 개념을 시작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준비, 고객과의 소통방법, 방송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방법 등을 교육받고 실전으로 방송하기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대한 두려움 극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처음에는 모든 교육생이 방송과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하지만 리허설 형태의 교육진행, 그리고 반복적인 실전연습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케팅 방법에 도전해 본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말한다. 이후 교육생들은 쇼호스트를 동반하는 방송에서 벗어나, 혼자서 나만의 상품을 판매하는 1인 셀러에 도전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로 중국 온라인 판매 도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21년부터 2전간 중국 현지 인들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식품에 대해서 판매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라이브커머스 판매방식은 중국 내 ‘왕홍’이라고 불리고 2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남 농산물 가공식품 32품목을 홍보함은 물론 3,100여만 원의 판매수익도 달성하였다.



농식품 라이브커머스의 효과



라이브커머스는 다양한 마케팅 자원을 가지지 못한 농업생산자에게 1인 온라인마켓과 1인 미디어방송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소비자 기준에서는 농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판매방송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생한 상품경험을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대화하듯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등 소통이 가능해 구매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한시적인 할인혜택 등을 통해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고객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점도 중요한 장점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정확한 정보, 저렴한 가격, 생산자에 대한 신뢰 등을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크다.

라이브커머스 확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도익 과장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전략의 핵심은 농업인 스스로가 1인 미디어의 주인공이자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방송진행 역량 및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2023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寶



보: ——— RAINBOW ——— 농업寶가치

농가에서 음력 2월 초하룻날은 ‘머슴날’이라고 하여,
이날 주인은 머슴에게 ‘농사일을 잘해 달라’는 의미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가무를 하며 하루를 즐기게 하였습니다.
가을 추수 후 쉬다가 다시 농사 준비로 바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일꾼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충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선조들이 베풀었던 협력의 미덕과 소통의 지혜,
그리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농기구를 손질했던 준비성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덕목입니다.

Index

46	치 U 농 장 체 험	고흥군 '포두면 신촌마을'
50	마 을 기 업 탐 방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株)'
52	귀농·귀촌 길잡이	해남군, 귀농·귀촌으로 제2의 고향이 되다
54	세계로 가는 K-농업	독일, 건강을 위한 자연식품 트렌드로 차(茶) 인기 상승
58	농 U P 테 크	숙면효과 기능성 상추 '흑하랑' 산업화 추진
60	병 해 총 정 보	마늘·양파 병해충 방제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따뜻한 교감

고흥군 포두면 '신촌마을'

나와 누군가의 관계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 그리고 SNS 등 네트워크 기반의 관계가 많아진 요즘은 다양한 인간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흥군 포두면의 신촌마을은 그런 이들이 큰 위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따뜻한 교감을 통해 말이다.

글 · 사진 | 정환정(작가)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 농촌의 소중한 가치 인식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줄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치유농장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모두가 환영받는

고흥군 포두면 신촌마을은 기세가 좋은 산들로 둘러싸인 곳. 하지만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마을의 모든 길이 잘 정비되어 있을뿐더러 어디를 보아도 정갈하다. 마을의 중심에는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사시사철 마을의 풍경을 맑고 투명하게 반영한다. 그런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지난해 설립된 신촌마을 '꿈이룸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저희 마을에서 운영 중인 치유프로그램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거든요.” 지난 2015년 오랜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정지영 이장이 꿈이룸센터의 2층으로 안내하며, 신촌마을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였다. 개인 혹은 법인이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마을 이곳저곳에 개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독특했다. 귀향·귀촌을 한 이들이 그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눈길을 끌었다. 오랫동안 신촌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 역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는 게 정 이장의 설명. 다시 말해 마을의 모든 이들이 치유를 위한 활동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뜻이다. 그 설명에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말랑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좋은 음식을 먹는 일, 내 몸을 돌아보는 일

첫 번째 치유체험은 음식. 울산에서 생활하다 고흥군의 풍광에 반해 삶의 터전을 옮긴 박성숙 요리연구가의 로즈메리 키친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옛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산뜻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의 치유는 오염되지 않은 고흥군의 식재료를 이용해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감각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고흥 특산 재료 중 한 가지가, 흔히 잡초로 오해하는 엉정귀입니다. 간 건강 회복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밀크시슬은 들어보셨지요? 엉정귀에는 그 밀크시슬이 많이 들어 있어요.”

박 요리연구가는 “엉정귀의 새순을 채취해 된장국을 끓이면 쓰거나 아린 맛 없이 너무나 멋진 맛이 난다”라며 “이런 요리를 고흥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일상적으로 먹어왔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식재료로서의 사용이 생경한 소재지만, 좋은 재료가 갖고 있는 건강한 성질을 이용한 요리는 체험객의 마음을 울리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익숙하지만 전혀 새로운 만남의 기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앵무새들과 어떻게 하면 교감을 나눌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단순히 손에 앵무새를 올려놓고 노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앵무새 체험장**. 2014년 신촌마을에서 가장 먼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던 앵무새 체험장의 임은상 대표는 유쾌한 설명과 함께 체험객들을 안내했다. 그리고 앵무새의 종류와 습성, 먹이 주는 법과 기분을 살피는 법 등에 관해 설명을 이어갔다. 단순히 체험객의 손에 먹이를 들려서 새장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무엇보다 특별해 보였다.

앵무새 교감체험의 하이라이트는 임 대표가 직접 부화기를 통해 부화시키고, 매일 두 시간 간격으로 모이를 주며 키운 앵무새들과 친해지는 시간. 신기하고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다가서면 도망가기 마련이니, 앵무새가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에 모두가 귀를 쫓긋 세웠다. 그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성공적인 관계 맺기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덕분에 손가락 끝에서 낮설어하던 앵무새들이 조금씩 얼굴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기다림이 주는 따뜻하고 정다운 보상이었다. 그저 모이만 먹고 날아가는 새가 아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을 나누는 반려동물과의 새로운 만남이기도 했다.

기분 좋은 경험은 **행복한 마구간**으로 이어졌다. 애니메이터로 활동하며 재활 승마 자원봉사를 통해 말과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고흥에서 승마를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는 김지혜 대표는 말의 기분을 살피는 법을 알려주었다. 손목이나 손끝을 내밀었을 때 말이 먼저 다가와 냄새를 맡거나 입술을 갖다 대면 괜찮지만, 귀를 뒤로 젖히면 예민한 상태라는 표시이니 더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였다. 다행히 말들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경험 덕분인지, 먼저 내미는 손길에 부드럽게 응해주었다. 그렇게 천천히 서로의 감촉에 익숙해지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건네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저희는 말을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고삐를 잡고 말과 함께 걸어보거나 울타리 없는 곳에서 좀 더 친밀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다만, 말들의 상태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은 운영이 유동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말도 행복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김 대표의 설명은 신촌마을의 치유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일맥 상통했다.

“저희 마을에서 치유의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지만, 무작정 많은 분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운영 주체들도 원래의 패턴과 영역을 지킬 수 있어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오시는 분들을 더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고요.”

정 이장은 신촌마을에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고 부연했다. 어쩌면 요즘 우리에게 가장 결여된 존재인 여백을, 신촌마을에서 찾을 수 있겠 다는 기대가 생겼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 때문에 힘겨웠던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 라는 믿음이 생겼다. 기대만으로도 벌써 치유가 가능한 곳, 고흥군 포두면 신촌마을이었다. ☺

신촌마을 정지영 이장

다른 마을보다 청년이 많은 곳. 청년들의 계획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저희 신촌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지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게 업무인 분들이 저희 마을을 찾아주신다면 더 깊은 치유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근의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마음이 지칠 때는 꼭 저희 마을을 떠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뜻하는 '마을기업'.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전라남도 마을기업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우수 마을기업은 전국의 마을기업 중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문제 해결 등에 성과를 나타낸 곳을 의미한다. 우수 마을기업에는 제품개발 비용, 기반시설 확충 비용, 홍보·판촉을 포함한 마케팅 비용 등이 지원된다.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은 2021년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었다.

Q 우수 마을기업인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을의 문제해결과 소득창출을 위해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2014년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을 설립했습니다. 2017년 전라남도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후 2018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신규 지정과 2019년 재지정, 2020년 고도화를 거쳐 2021년에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고요. 지역의 콩과 옷나무를 활용해 두부, 메주, 장류 제품 등을 만들어 판매하며, 2022년 마을 총소득은 약 7억 원 정도입니다.

100세 시대, '함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다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

Q 처음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습니까?

'글월 文(문)', '별 星(성)'이라는 뜻의 문성마을은 1700년대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서당을 설립, 운영하여 과거 '서당골'이라 불렸습니다. 2012년 마을 기금을 만들기 위해 주민 5명이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콩으로 파는 것보다 1차 가공을 하면 4배 이상의 소득이 창출됨을 알게 되었지요. 2013년에는 참여 주민이 7명으로 늘었고, 된장을 담기 시작했어요. 마을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자 2014년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들었습니다.

Q 2021년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마을 주민의 높은 참여율과 마을 전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성과 공동체성인데, 마을기업 수익의 3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규직 6명 외에 근로를 희망하는 주민 전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름답고 깨끗한 농촌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농업회사법인 서당골㈜'만의 특별한 프로젝트와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5년까지 100명의 마을 주민이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마을기업이라는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자는 내용의 '다 함께 100×100×100 프로젝트'로 마을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마을 연금 제도가 시행되는데, 병환자 1명, 독거 고령자 1명, 다문화 가정 1명에 월 2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모든 주민에게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단, 수혜자는 마을 공동활동 참여가 원칙입니다.



Q 우수 마을기업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은 마을 구성원의 삶의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오래가고, 작지만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그것이 마을기업이라 여기며 서당골은 '채움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나이와 관계 없이 소득을 내고 자기계발을 도모하여, 받은 만큼 돌려주고 배운 만큼 나누는 행복한 마을과 주민의 역량을 기대하고 있어요. 서당골의 '행복향기 세상 속으로' 전진하겠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은

현재 마을 주민의 88%인 23명이 각자 4.33%의 지분으로 650만 원씩 출자하여 균등 출자, 균등 분배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 대표 작물인 서당콩(서당골 생산 재래종)에 천일염과 옷나무를 첨가하여 마을 전통으로 전수되는 된장을 제조하며, 콩의 가치를 확대해 '서당골 전통두부', '아로니아 두부쌈장', 메줏가루를 활용한 '뽕잎고추장' 등도 생산 중이다. 제품은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inizi.kr), 또는 순천 로컬푸드, 남도장터 등에서 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숙박, 편의시설, 농경체험장, 농가식당 등 방문객 체류 환경을 구축하여 '식생활 체험프로그램' 및 '농경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문성길 67

고객센터 061-751-7517

해남군, 귀농·귀촌으로 제2의 고향이 되다

귀농·귀촌으로 전라남도에서 새로운 인생 설계에 도전하세요. 전라남도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출처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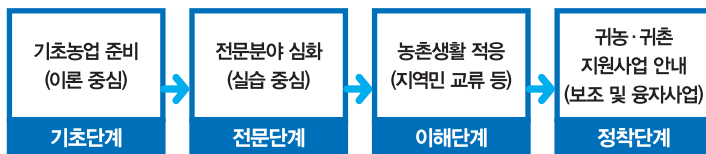
해남군 '귀농·귀촌 체류형 자원센터' 운영

해남군 '귀농·귀촌 체류형 자원센터'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원스톱 귀농·귀촌교육단지이다. 2020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한 '귀농·귀촌 체류형 자원센터'는 해남군 계곡면 둔주리 16,023㎡ 부지에 자리하였으며 체류형 주택 12세대, 교육관, 세대별 텃밭, 공동실습농장, 시설 하우스, 농기계 자재 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체력단련실과 도서관, 동아리방, 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구비하였다.



입교생 교육 프로그램

- **교육기간:** 2023. 3. ~ 11. (9개월)
- **교육시간:** 필수교육 192시간(주 2일 4시간, 24주간),
개인별 선택교육
- **교육내용:** 기초농업 준비, 전문분야 심화, 농촌생활 적응
- **교육인원:** 12세대 (사용료 150천 원/월)
- **단계별 교육내용**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최대의 군으로 동쪽은 강진군, 서쪽은 진도군, 남쪽은 완도군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영암군과 목포시에 접하여 있다. 태백산맥 지맥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양성기후로 온화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기에는 천혜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산강 Ⅱ-1, 2지구와 고천암 간척사업을 통해 많은 농경지가 확보되어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행정조직 1읍, 13면
*면적 1031.4km²

사업명	사업내용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	- 정보제공, 상담, 홍보, 정책수립, 지원사업 추진 - 귀농·귀촌 희망센터 홈페이지 관리
귀농인의 집 운영	- 주택 7개 동(34㎡) - 주거 제공(교육 없음), 사용료 100천 원/월 - 귀농(예정자) 대상 6개월 이내 운영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 원고료 콘텐츠 1건당 40천 원, 월 200천 원 한도 -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등 SNS 활동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및 해남군민 - 귀농·귀촌 정보제공, 정책소개, 정착사례 등 콘텐츠 SNS 활동
농촌에서 살아보기(공모)	-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마을 운영 - 참가자 연수비 월 30만 원(인당) - 내용: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영농체험, 마을문화행사참여 등)
어울림마을 조성사업(공모)	- 최대 24백만 원 - 귀농산어촌 가구 다수 포함 마을(융화프로그램 등) - 마을경관 조성 및 융화프로그램 지원 - 나무식재(동백나무, 홍가시 등) 및 마을꽃길 조성 - 상호 공감 프로그램, 멘토·멘티 결성, 재능기부 등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 최대 70만 원(세대당)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정자 포함) - 이사원료(이사비용 선결제) 후 지급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최대 5백만 원(세대당) -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본인 소유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영농창업 상품권 지원	- 사업비: 1백만 원(세대당) 해남사랑상품권 - 대상: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조건: 2020.1.2. 이후 경영체등록, 최초신청 1회

사업명	사업내용
귀농인 정착도우미 지원	- 사업비: 도우미 활동수당 월 20만 원(1명당) - 대상: 귀농인 영농을 지원할 도우미 선배 귀농인 또는 선도농업인 - 내용: 귀농인에게 재배기술, 컨설팅 등 멘토 활동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지원	- 사업비: 최대 21백만 원(세대당) - 대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 귀농인 - 내용: 하우스, 과원, 농산물가공 등 소득화작목 재배 지원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 최대 30백만 원(팀당) - 창업희망 귀농어·귀촌인(팀)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 창업비용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사업비: 농업창업 300백만 원, 주택구입 75백만 원 - 대상: 귀농인,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귀농 5년 이내 - 내용: 연 1.5% 대출(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금 이자 지원
귀농·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사업비: 50만 원(1명당) -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귀농·귀촌인의 자녀가 관내 초·중·고 재학
농촌 유학경비 지원사업	- 월 40만 원 - 주거비(주택 임차료 등) 및 공공금 비용 지원 - 가족체류형: 가구당 월 400천 원 - 농가형: 1인당 월 400천 원 - 센터형: 유학경비(1인당 월 800천 원) 및 관리자 활동비(월 600천 원)
농산어촌 유학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최대 2백만 원(세대당) - 농촌유학 운영 농가 -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량 지원

문의: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61-531-4272)

독일, 건강을 위한 자연식품 트렌드로 차(茶) 인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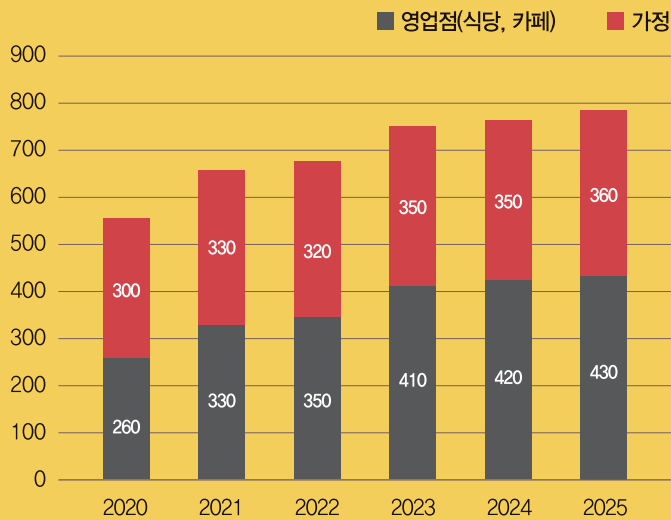


글 |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송계숙

독일에서는 차가 대유행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건강과 천연영양공급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차 시장이 수혜를 보고 있다. 통계 전문회사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독일 차 시장의 매출 규모는 식당 및 카페 등 영업점에서 3억 5,000만 유로와 가정에서 3억 2,000만 유로, 총 6억 7,000만 유로에 달하며 2025년에는 영업점과 가정을 합친 총매출 규모가 7억 9,000만 유로로 증가할 전망이다(2022~2025년 연평균 성장률 5.6%).

● 2020~2025년 독일 차 산업 매출액 및 전망치

(단위: 백만 유로)



주: 2022~2025년은 추정치, 우크라이나 사태 시장 반영 통계치 (자료: Statista)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이슈와 전 세계 128개 해외무역관이 수집한 시장 정보 중에서 전라남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농업 관련 해외시장 뉴스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전합니다.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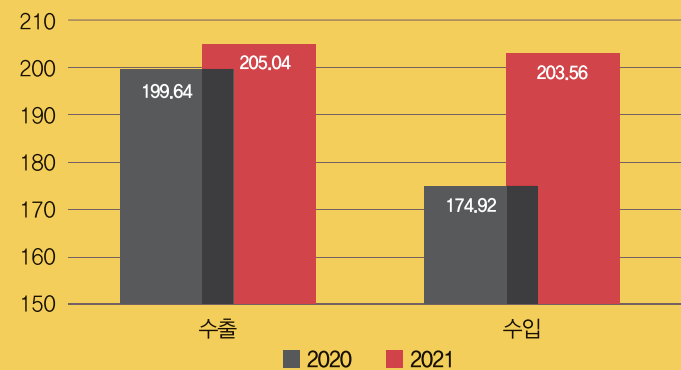


독일 차 소비 증가 추세, 미래 시장 매출 전망 청신호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 따르면, 독일의 2021년 차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6.4% 증가한 약 2억 356만 유로에 달한다. 이는 약 4만 7,051톤에 해당한다. 독일의 2021년 차 총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약 2억 504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수출량은 약 2만 1,908톤에 해당한다. 2021년 독일의 차 총수출액 증가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총수입액의 증가율은 두 자릿수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독일의 가장 큰 차 수입국은 인도로 그 규모가 약 1만 2,352톤에 달한다. 다음은 중국(9,554톤), 스리랑카(6,970톤), 아르헨티나(3,578톤), 말라위(2,588톤) 순이다.

● 2020~2021년 독일 차 수출 및 수입액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자료: Statista)

독일 차 협회(German Tea & Herbal Tea Association)의 '2021년 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인 1인당 홍차, 녹차, 허브 및 과일차 소비량은 약 70리터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2리터 소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 Statista에 따르면, 독일인 1인당 차 평균 매출액은 2021년 7.84유로에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7.97유로에 달하며, 2025년에는 9.42유로로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 2020~2025년 독일인 1인당 차 평균 매출액

(단위: 유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업점(식당, 카페)	3.12	3.95	4.15	4.86	5.01	5.16
가정	3.63	3.88	3.82	4.14	4.20	4.26
합계	6.75	7.84	7.97	9.00	9.21	9.42

주: 2022~2025년은 추정치, 우크라이나 사태 시장 반영 통계치 (자료: Statista)

Statista 설문 조사에 의하면 2021년 차를 마시는 독일 가정의 약 58%가 Meßmer 브랜드의 차를 애용한다고 응답했으며, Teekanne(52%), Lipton(37%), Milford(31%) 순으로 브랜드별 인기가 확인되었다. 자체 브랜드(PB)는 25% 선으로 나타났다. 현재 독일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 브랜드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체 브랜드(PB)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주목받으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독일에서 인기 판매되는 차 제품

제품 사진				
제품 정보	브랜드 명: VAHDAM 종류: 홍차 원산지: 인도 가격: 9.99유로	브랜드 명: Tee Gschwendner 종류: 녹차(유기농) 원산지: 중국 가격: 4.90유로	브랜드 명: Teekanne 종류: 과일차 원산지: 독일 가격: 2.89유로	브랜드 명: Meßmer 종류: 허브차 원산지: 독일 가격: 1.85유로

자료: 제조사 홈페이지 및 아마존

Statista 설문 조사에 의하면 2021년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 종류로는 응답자의 59%가 과일차를 마신다고 했으며 허브차(53%), 홍차(49%), 녹차(47%), 루이보스 · 레드부시차(28%)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말차와 녹차가 유행

프랑크푸르트 스카이라인프라자(Skyline Plaza) 쇼핑몰 내의 차 전문점 '테 그슈벤드너(Tee Gschwendner)'의 영업사원 A씨는 차를 애용하는 고객은 연령에 무관하게 다양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연령에 따라 차의 종류별 선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데, 현재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말차(Matcha Tee)와 녹차가 유행이라고 한다. 허브차의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과일차는 여름에 얼음을 넣어 차갑게 해서 아이스차로 마시면 맛도 좋고 더위도 식힐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특히 과일차는 어린이도 좋아해 온 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저녁 시간에 마셔도 위에 부담이 없으며, 수면 방해를 받지 않아서 가정에서 주로 구입한다고 한다. 홍차의 경우는 젊은이들보다는 높은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차 전문점을 찾는 차 애호가들은 티백용 차보다는 직접 덜어서 파는 잎차를 선호하는데, 이는 맛이 좋은 고품질 차를 원하는 이유도 있고 지속가능성 · 친환경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 독일 차 전문점 '테 그슈벤드너' 내부 전경과 판매하는 우리 차 제품 사진



자료: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촬영

● 슈퍼마켓 REWE와 드러그스토어 DM 매장의 자체 브랜드(PB) 유기농 차 제품 사진



자료: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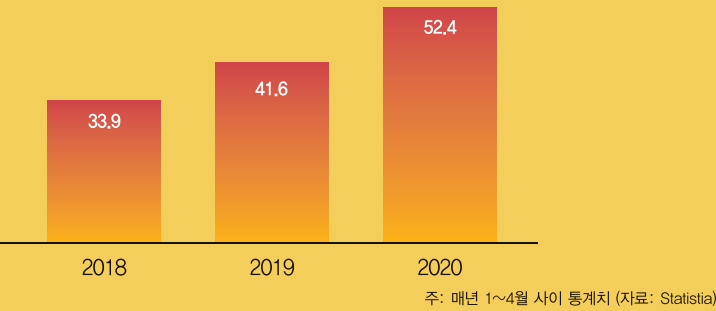


'테 그슈벤드너' 매장에 진열된 한국산 차는 다른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인 고급상품으로 분류되어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A씨에 의하면 한국산 차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일본산 차이다.

독일에서는 자연식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 차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통합 정보분석기업 닐슨(Nielsen)에 따르면, 2020년 1~4월까지 독일의 유기농 차 매출 규모는 약 5,240만 유로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1% 증가를 나타낸다. 유기농 차 트렌드에 맞춰 독일의 일반 슈퍼마켓이나 드러그스토어 차 진열 코너에는 유기농 차 제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자체 브랜드(PB)로 비용 절감을 통해 더욱 저렴한 유기농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 2018~2020년 독일 유기농 차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시사점

독일에서는 건강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늘면서 자연식품인 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 차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차는 비타민이 풍부하며 칼로리가 거의 없고, 항산화 작용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우리 몸에 좋은 천연 영양제와도 같은 기능을 하며 또한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 및 피로 해소에도 좋다. 좋은 이들과 함께 마시는 차는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만들고, 혼자 마시는 차는 그 나름 삶의 평안과 여유를 즐기게 한다. 차는 손님을 대접할 때나 선물로도 손색이 없다.

인류는 4차 산업혁명 등 매일 급속도의 사회 및 기술 발전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빠른 속도에 현대인들은 바쁘게 적응하면서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욕구 또한 강해지고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메타버스(가상 세계), 블록체인 등 최첨단으로 향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동시에 건강, 친환경, 그리고 자연식품과 휴식에 대한 소비자의 열망이 차 시장의 성장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많은 이에게 새로운 에너지 충전이 되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독일의 차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

자료: Statista, 독일 연방 통계청, KOTRA 자체정보 종합

기능성 농식품, 농작물 신품종 등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농업정보를 소개합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장서우 연구사

숙면효과 기능성 상추 ‘흑하랑’ 산업화 추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민관협력으로 19종 제품 상용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급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변화에 발맞춰 수면제 부작용이 없는 천연 식물성 소재인 ‘흑하랑’ 상추 품종 개발과 전문특화단지 조성, 민관협력으로 ‘흑하랑’ 상추의 천연성분을 이용한 가공 제품화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지난 12월, 숙면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 품종으로 수면건강제품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흑하랑’ 상추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8년간의 연구 끝에 2019년 등록을 마친 품종으로, 정신 건강과 수면 효과가 있는 락투신 성분(3.74mg/g)이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 풍부하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018년부터 현장실증-시험사업-정책사업을 통하여 전문재배단지를 육성해 왔으며, 현재 20여 농가가 참여해 재배면적은 30ha, 생산량은 300톤까지 증가하였다.

농가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 잡은 ‘흑하랑’

‘흑하랑’ 상추는 기능성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일반 상추 대비 1.5~8.5배 높은 단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가공 원료화에 따른 일시수확으로 노동력을 25% 줄여줘 농가의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도 내 농가소득 안정 방안으로 ‘흑하랑’ 상추 공동 생산자 연합회에 고유 상표(흑하랑, 꿀잠상추 흑하랑) 사용을 허락하여 생산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외부 기업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흑하랑’ 품종의 활용은 지난 2017년 ㈜휴롬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업체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해 제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 19개의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흑하랑’ 티백차와 양갱 제품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에서 현지 테스트 중이고 해외 유통업체가 직접 해당 나라에 맞는 고유 제형의 상품 개발도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향후 수출이 늘고, 건강기능성 원료 전문기업체 5곳에서 진행 중인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성 인증 제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면 시장 규모가 2030년 1천억 원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형 개발 및 시험유통, 전문생산단지 중심의 대용량 가공시설 구축, 도 내 의학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화, 해외 종자유출 방지를 위한 품종 고유 분자마커 개발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 흑하랑

육성 과정

2010년에 30년 이상 토종종자를 보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를 수집하였고, 2011년부터 토종수집종 중에 락투신 함량이 높은 상추 계통을 순계 분리하였다. 엽색의 안토시아닌 발현정도, 잎 모양의 표현형태로 선발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집단 선발, 고정화 과정을 거쳐 육성된 신품종으로 JLS201004-12와 적색의 엽에서 가장 근접한 열풍적치마를 대조품종으로 설정하고 잎의 표현형태, 엽수 등 구별성에 대한 특성조사와 생산력 검정 3회를 실시하였다. 2016년 품종보호출원을 하였으며, 재배시험을 거쳐 2019년 2월 최종 등록되었다.

주요 특성

- 엽구형성은 포피형임
- 잎은 좁은 타원형, 편평함
- 엽색은 흑적색으로 안토시아닌 색이 잎 위쪽으로 고르게 퍼져 있음
- 기능성 성분인 락투신(3.74mg/g) 함량이 높음
- 쓴맛이 강함



‘흑하랑’ 개발한 장서우 연구사, ‘농업기술대상’ 수상

2022년 농촌진흥사업 농업기술대상 평가에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장서우 연구사가 ‘농업기술대상’을 수상하였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분야 최고의 상으로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 등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장 연구사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 개발 및 수면건강제품 산업화’ 연구실적으로 농업현장개인분야에 응모하여 지방기관 최초 수상자가 되었다.

장 연구사는 전통 토종종자의 기능 성분을 활용한 지식 재산권 확보와 기능성 품종의 개발·보급, 프리미엄급 상추로 유통·전문생산단지 육성, 수면건강제품으로 가공 산업화 및 수출까지 연계하여 글로벌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18년간 토종 엽채류 기능성 품종 육성 연구에 몰두하여 ‘흑하랑’을 비롯한 ‘청하랑’, ‘청하랑2’ 상추를 육성하고 기업체 수요와 생산 농가의 여건에 맞는 협업을 통해 임상추뿐만 아니라 가공제품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성 원료화까지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점도 인정받았다.

수면기능성제품 산업화에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장 연구사는 “앞으로 숙면가공제품으로 국내외 소비시장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의약분야 연구와 원료용 식물자원의 보호조치 방안 강구 등 농가의 실질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마늘·양파 병해충 방제



뿌리응애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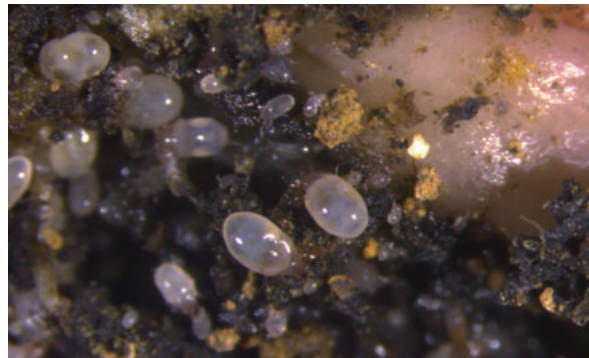
뿌리응애는 마늘 종구나 이어짓기(연작)지 토양에서 생존해 있다가 상처나 병해 피해 부위 및 고자리파리, 선충 등 가해 부위에 모여들어 급격히 증식된다. 비늘줄기(인경)를 썩게 만들며, 특히 재배토양에 미숙퇴구비 살포나 사질토양일 경우 발육환경이 알맞아 피해사례가 빈번하다. 저장 중 피해는 수확 마늘의 피해 부위나 인피 사이에 다수 생존해 있다가 병원균 침입구나 상처 입은 부위에 집중 발생한다. 피해 마늘을 손으로 만져보면 비늘줄기가 사라져 껍질만 남아 있고, 응애의 사체들이 다수 들어차 있음을 볼 수 있다.

형태

뿌리응애는 유백색의 반투명한 타원형이고, 입틀과 다리는 갈색이다. 성충의 크기는 0.6~0.7mm로 매우 작아 발생밀도가 적을 때에는 육안식별이 어려우나 군집 발생 시 발견하기 쉽다. 발육단계는 ‘알-부화약충-제1약충-제3약충-성충’이며, 5단계 발육에 부적합한 환경에서는 제1약충과 제3약충 사이에 두꺼운 키틴질의 피부를 가진 휴면약충이 출현한다.

방제법

뿌리응애는 종구의 껍질(인피) 사이나 토양 중에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방제하기 어려우나, 건전한 종구를 심거나 재배토양에 미숙퇴구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생육 중 피해는 크지 않다. 수확 직후 건조를 잘 시키고 상처 입지 않은 건전한 마늘을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하면 응애 발생이 적다. 응애의 크기는 매우 작고, 작물 지하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찰 및 방제하기가 어려운 해충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약제를 사용하여 침입경로를 차단하고, 여러 가지 증식 조건을 배제시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늘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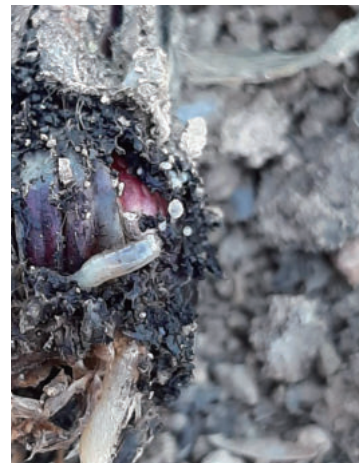
애벌레는 작물의 뿌리가 난 부분에서부터 파먹어 들어가 지하부의 비늘줄기에 피해를 주는데, 밀도가 높을 때는 줄기 속까지도 가해한다. 피해를 받은 포기는 아랫잎부터 노랑게 색깔이 변하며, 피해가 심하면 전체가 말라 죽는다. 피해 입은 포기를 뽑아보면 뿌리의 중간이 찢린 채 잘 뽑히며, 그 속에서 애벌레(구더기)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주로 인가 근처의 재배지에서 피해가 심하며, 가을에는 쪽파에 피해가 심하고 양파 모판이나 마늘에서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봄에는 파 모판과 마늘 및 양파의 본밭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며, 모든 작물이 말라 죽는 수도 있다.

형태

고자리파리의 성충은 집파리보다 약간 작으며, 전체적으로 연한 회색을 띤다. 씨고자리파리는 일반적으로 고자리파리보다 작으나 색깔은 거의 같다. 고자리파리의 알은 백색으로 타원형이며, 한쪽은 오목하고 다른 한쪽은 볼록하다. 알의 길이는 1.2mm 내외이고, 씨고자리파리는 1mm를 넘는 것이 없다. 애벌레는 유백색의 구더기이며, 앞쪽 숨구멍의 숫자로 이 두 종을 구별할 수 있는데 고자리파리는 11~12개 내외이고, 씨고자리파리는 6~8개 내외이다.

방제법

가을에 씨 뿌린 후 썩어 나가는 시기가 옮겨 심는 시기가 발생 최성기 이전일 경우에는 토양살충제를 뿌린 후 흙과 잘 섞어 준다. 이른 봄에는 성충이 발생하기 전에 침투성 입제를 살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늘, 양파의 비닐피복 재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침투성 입제를 살포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가스독을 나타내는 입제를 살포하거나, 약제가 토양으로 스며들 수 있는 수화제나 유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마늘 고자리파리



노균병

파, 양파에 발생하며 봄, 가을 2회에 걸쳐 발병 최성기가 있다. 특히 4월 중순~5월 중순 무렵 기온이 낮고 비가 자주 올 때 발생이 많다. 양파 발생 병해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 모판(묘상)에서부터 발생하여 생육기간 내내 발병한다. 잎과 꽃자루에 타원형의 황백색 병무늬가 생기고, 표면에 흰색의 곰팡이가 형성된다. 병이 진전되면 병든 잎은 말라 죽는다. 전신 감염된 포기는 잎의 광택이 없어지고 담황록색으로 변하며, 옆으로 구부러지고 생육도 쇠퇴한다.

발생

난포자의 형태로 병든 식물의 잔재물이나 군사의 형태로 비늘줄기에 붙어서 다음 해 전염원이 된다. 기온이 10~15°C이고, 습기가 많을 때 많이 발생한다. 또한,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 연약하게 자라거나 비료기가 떨어진 밭에서 발생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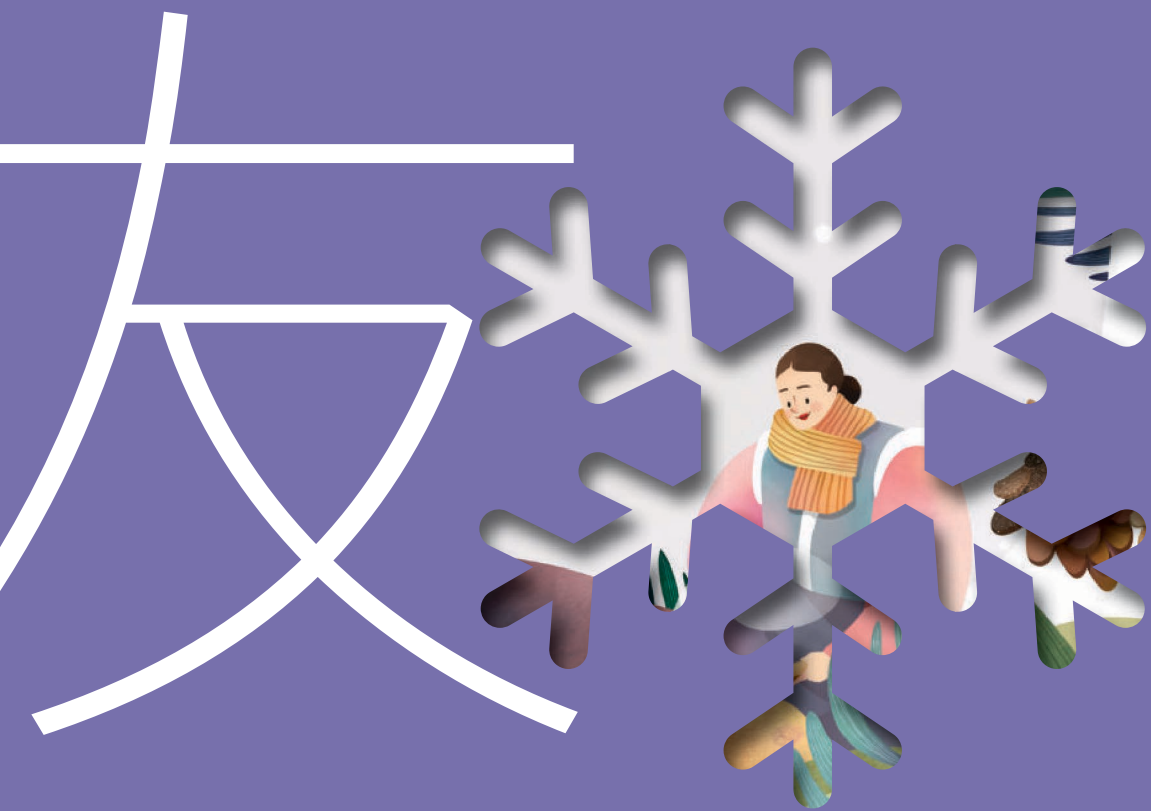
방제법

발생이 심한 재배지는 백합과 이외의 작물로 돌려짓기한다.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하고, 수확 후 병든 잔재물을 모두 모아 태우거나 땅속 깊이 매몰한다. 묘상에서부터 약제를 살포하여 전염원의 확산을 막는다.



양파 노균병

‘피그말리온 효과’는 정신을 집중해 어떠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불가능한 일도 실현된다는 심리적 효과를 일컫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그리스 신화 중 자신이 만든 여인상을 사랑한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일화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피그말리온 효과’는 생활 곳곳에서도 응용됩니다. 부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긍정으로 대한다면 결과는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 RAINBOW 농업友생활

Index	64	농업트렌드 관엽식물의 안전한 겨울나기
	66	농업재정 전라남도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8	안전과 건강 365 농업인을 위한 겨울철 농작업 안전 지침
	72	농업인교육 3월·4월 교육 일정
	74	JARES 뉴스
	78	독자마당

관엽식물의 안전한 겨울나기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등 도시의 뒷밭이나 옥상, 베란다 등의 공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존재합니다. 건강과 환경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인 농업의 시기별 주요 관심사를 정리합니다.

출처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으로 자연 환기가 어려운 계절이다. 이럴 때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관엽식물을 키운다면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식물 특성에 맞는 온도와 습도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 실내에서 관리하고 있던 관엽식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화분 위치와 물주기 횟수, 물 온도 등 관리 요령을 알아본다.

관엽식물

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비교적 잘 견디고, 사계절 싱그러운 잎을 볼 수 있어 실내에서 많이 기르는 관엽식물은 대부분 열대나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이다. 공기 정화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관엽식물을 키우는 가정도 많아져 2010년 962만 속, 2019년 1,052만 속 등으로 관엽식물의 거래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관엽식물은 비교적 잎이 얇고 넓은 편이어서, 상대 습도가 높고 온도가 일정한 5~9월까지의 잘 자란다. 그러나 겨울철 실내기온이 10℃ 이하로 내려가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재배 온도에 따른 관엽식물의 분류

- 최저온도가 15℃ 이상이 되어야 실내에서 견딜 수 있는 식물은 디펜바키아, 아글라오네마, 알로카시아, 아펠란드라 등이다.



디펜바키아



아글라오네마



- 최저온도가 10℃ 이상이 되어야 실내에서 견디는 식물은 고무나무, 테이블야자 등으로 대부분의 관엽식물이 여기에 속한다.



고무나무



테이블야자

관엽식물 관리 요령

- 최저온도가 10℃ 이상 유지될 때 잘 자라는 식물은 베란다에 두지 말고 실내로 옮긴다. 실내에서도 창가 온도가 낮아지는 저녁에는 식물 위치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베란다에 둘 때는 밤에 커튼을 쳐서 외풍을 막아주고, 비닐이나 신문지로 화분을 덮어둔다.
- 겨울에는 생장이 최소화되므로 물은 여름철보다 적게 주는 것이 좋다. 보통 흙 표면이 마를 때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물뿌리개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잎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화분을 바닥에 두면 온돌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식물 뿌리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바닥보다는 선반 위에 두는 것이 좋다.

- 최저온도가 0℃ 또는 그 이하의 추위에서도 견디고, 주로 우리나라의 남부 해안가나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은 아이비, 팔손이, 금식나무, 백량금, 엽란 등이다.



아이비



팔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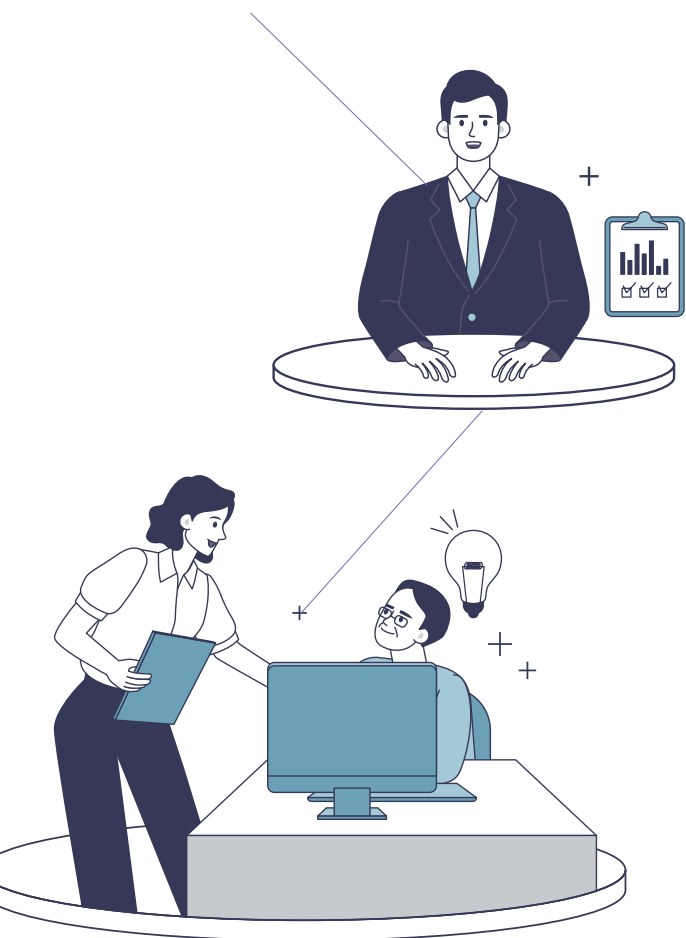
- 잿빛곰팡이병¹⁾, 흰가루병²⁾ 같은 겨울철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찬 바람을 쐬면 바로 냉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베란다 쪽에 있는 화분은 안쪽으로 들여놓거나 식물이 없는 다른 쪽의 창을 열어 환기한다.
- 관엽식물을 실내로 들여놓을 때 가지와 이파리를 가지치기해 주면 불필요한 영양 소모를 막을 수 있다. 싹싹해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비료나 영양제를 듬뿍 주어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

1) 잿빛곰팡이병은 과실과 줄기, 잎 등에 마름 또는 썩음 증상이 나타나는 병해이다. 화색빛의 균사가 표면을 덮으면 해당 부위는 연화되어 물러지고 썩으며,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

2) 흰가루병은 식물의 잎과 줄기에 흰가루 형태의 반점이 생기는 병해이다. 특히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거나 잎과 덩굴이 복잡하게 얽혀 통풍이 불량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전라남도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전라남도가 더 좋게 달라집니다.
2023년 전라남도 농림·축산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청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 식량원예과에
문의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품목 확대 (유형: 변경사업)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작물 지원품목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_ 2023년 1월 1일)		
주요 내용	종전	변경
•지원품목 확대	14개 품목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오디, 블루베리, 복숭아	15개 품목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오디, 블루베리, 복숭아, 무화과
•지원기간 연장 (벼)	(7개월) 2023년 4~10월	(8개월) 2023년 3~10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월급제 형식으로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해당 농협에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은 무이자로 매달
월급을 지원받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일정 규모 이상
면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 중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 기간: 2023년 3 ~ 10월(8개월)
- 지급액: 월 200 ~ 2,500천 원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업인이 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체결 후 농협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61-286-6232)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 (유형: 신규사업)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을
멘토로 지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1:1 교육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_ 2023년 1월 1일)

- 사업취지**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들의 저비용·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등 교육사업 지원
- 사업내용**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유기농 명인의 지도·
상담 지원(명인 기술 전수비 및 교육훈련비 지급)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멘토) 기술 전수를 희망하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을 지원합니다.
- (멘티) 사업신청일 기준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1) 제외대상: 멘토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2) 우대 선정조건: 만 50세 미만 농업인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4개월의 교육훈련비(연 200만 원 한도,
월 5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유기농 명인에게 기술 전수비(연 140만 원
한도, 월 35만 원 이내)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친환경농업 희망 농업인(멘티)은 4개월간 월 32시간 이상 유기농 명인(멘토)
농가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수행하고, 멘토와 멘티는 각각 활동일지와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육성팀 (061-286-6342)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유형: 신규사업)

FTA 등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 등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및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_ 2023년 1월 1일)

- 사업취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문제해결과 과수 분야 기계화
확대를 통한 과수 재배농가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농기계 지원
- 지원규모** 150대, 3,000백만 원
(도비 450(15%), 시군비 1,050(35%), 자부담 1,500(50%))
※ (지원단가) 과수 분야 농기계 기준 20백만 원/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구분	지원내역	지원대상
시설·장비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배수시설, 서리· 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사설, 작업로정비, 지주 시설,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등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장비	최근 3년간 국비지원사업 미수혜 농가
농기계	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과수 생산관리에 직접 이용되는 농기계	전체농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 과수 지원사업과 어떤 점에서 다르나요?

국비 사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조성한 과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국비): 2012년 3월 이후 조성 과원 미지원,
3년 이상 출하·약정

문의 식량원예과 아열대농업팀 (061-286-6482)

농업인을 위한 겨울철 농작업 안전 지침

겨울철 농작업 시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작업능률이 떨어지거나 농기계의 잦은 고장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겨울철 영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하우스 농사의 경우 날씨가 추울 때 환기 부족에 따른 분진 발생이 많아져 농업인의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겨울철 농작업 시 유해환경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 요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출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 '농다락'

겨울철 비닐하우스 농업인 안전 관리

겨울철 비닐하우스는 내외부의 온도와 습도 차이가 크므로 고온다습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추운 외부로 나가면 생리적 불균형이 발생해 감기,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장시간 일할 경우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우며, 내부의 산소농도가 낮아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농약 살포는 농약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닐하우스는 대체로 크기가 작고 낮으며 반원형의 협소한 내부 구조 때문에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여 소위 '하우스병'과 같은 질병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비닐하우스 작업환경 개선 및 하우스병 예방을 위한 작업 요령

-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한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과 밖의 온도 차를 줄이는 중간휴식공간을 마련한다.
- 하루 5시간 이상 하우스 안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고, 맑은 공기를 자주 마셔 산소를 공급해 준다.
- 탈수증을 막기 위해 물 1ℓ에 소금 ½작은술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을 섭취한다.
- 하우스 내에 온도계를 매달아 놓고 자신의 작업온도를 항상 점검한다.
- 작업복은 방수가 되면서 약간 추울 정도로 입는다.
- 하우스 밖으로 나올 때는 마스크를 쓰고, 수건으로 목과 어깨 등을 추위로부터 보호한다.
- 하우스 밖으로 나와서는 손과 손목을 마사지하고, 목과 어깨 운동을 해준다.

농업인의 직업병 '농부폐증(Farmer's lung)' 예방 관리

'농부폐증'은 농업인의 직업병 중 하나로, 농사를 지으면서 먼지가 많은 곳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걸리는 질환이다. 겨울철에는 바깥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에서 환기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특히 겨울에 건조더미를 쌓아둔 헛간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환기가 안 되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작업은 먼지 때문에 농업인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먼지는 무기먼지와 유기먼지로 나눌 수 있다. **무기먼지**는 일반적으로 돌이나 흙과 같은 광석의 비율이 많은 먼지를 뜻하는데, 대부분의 무기먼지는 이산화규소나 석면 같은 종을 제외하고는 건강에 대한 영향이 적은 편이다. **유기먼지**는 미생물을 포함하는 먼지로 곡물 먼지나 꽃가루, 돼지 오줌, 닭이나 오리, 가축의 분뇨 등에서 발생한다. 버섯을 재배하는 곳 또한 공중에 날아다니는 버섯의 포자 때문에 유기먼지가 많다. 유기먼지를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폐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농부폐증'의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먼지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사일을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이럴 때는 되도록 미세한 먼지가 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줄이고, 일할 때 반드시 분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분진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얼굴과 분진마스크의 빈틈으로 미세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해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기먼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증상과 질환



콧물 과다 분비(비염)



따끔따끔한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기침과 호흡 곤란



발열, 두통, 가슴 답답함

농업인의 직업병 ‘농부폐증(Farmer’s lung)’ 예방 관리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작업한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농부폐증’이 의심되므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기침이 잦아지고, 가래의 양이 많아진다.
- 열이 나고, 때때로 오한(열이 나기 전 몸이 춥고 떨리는 것)이 난다.
- 호흡곤란이 있거나 숨을 빨리 쉬고, 숨쉬기 어렵다.
- 가슴 쪽에 통증을 느끼거나 가슴이 조인다.

평상시에 먼지가 많은 농작업장은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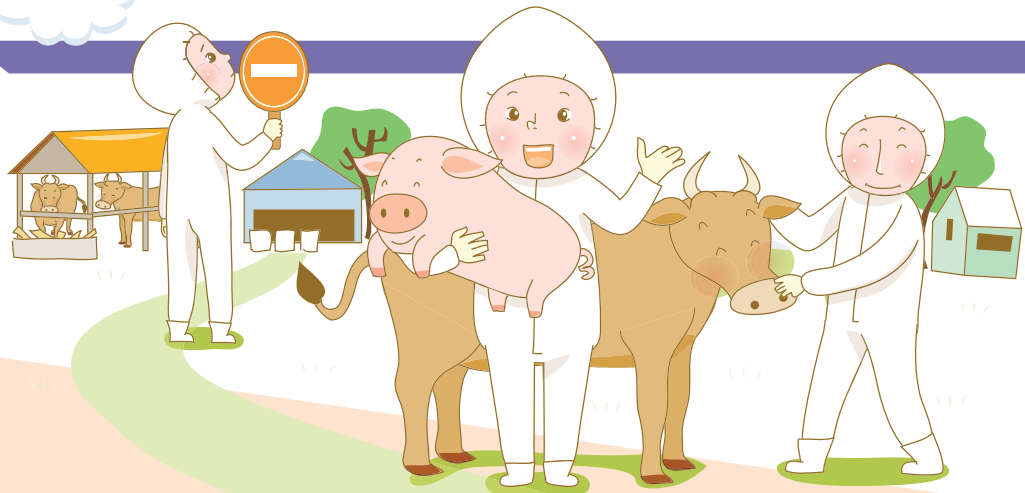
- 작업장의 습도를 높이고 환기를 자주 한다.
- 일할 때는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바람(기류)이 가지 않게 한다.
- 바람이 많은 날의 환기는 더 많은 먼지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바닥을 쓸기 전에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가 덜 날리도록 한다.
- 동물사육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작업복과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몸에 맞는 크기의 작업복과 호흡기 보호구(분진마스크)를 선택한다.
- 동물을 다루는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반드시 따로 구비한다.
- 작업 후에는 작업복을 작업장에 두고 나간다.
- 동물사육장에서 동물의 비듬이나 정자, 소변과 같이 동물에게 나오는 물질이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장갑, 가운, 인증된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면마스크는 분진을 막는 기능이 없기에 분진마스크 대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분진마스크는 식약처나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고령농업인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호흡하기 편한 식약처 인증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



겨울철 동상 응급처치 요령

동상은 추운 환경에 노출된 신체 부위에서 발생하는 한랭질환이다. 동상이 발생하면 통증과 수포가 올라오고 심하면 근육과 뼈까지 과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특히 겨울에 야외 작업이 많은 고령농업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상 원인과 단계

우리 몸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이때 혈관이 수축하며 몸에서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동상이 발생하게 된다. 동상은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심한 4도는 피부 깊숙이 과사가 일어난 상태이다. 과사는 세포·조직의 일부가 죽은 상태를 뜻한다.

동상 단계	상태	증상
1도	붉은 반점이 생김	찌르는 듯한 통증, 붉어지고 가려움, 부종
2도	물집이 생김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발생
3도	피부에 궤양이 생김	피부와 피하조직 과사, 감각 소실
4도	피부 깊숙이 과사가 일어남	근육과 뼈까지 과사

올바른 동상 응급처치 방법

동상이 발생하면 추운 환경에서 벗어나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옷이 젖었다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몸 전체를 담요로 감싸고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38~42℃ 정도)에 담가두는 것이 좋다. 귀나 얼굴에 동상이 생겼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자주 갈아가며 대준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동상이 발생했다면 사이사이에 마른 거즈를 끼워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한다.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면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한다. 다리에 동상이 생겼을 때는 동상 부위가 녹고 난 다음에도 일정 시간 동안 걸으면 안 된다.

잘못 알고 있는 동상 응급처치

- 술을 마시면 동상을 예방할 수 있다?
(X) 술을 마시면 말초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추운 환경에서는 열을 몸 밖으로 빼앗기게 돼 체온 손실을 가중시켜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다.
- 동상 부위에 직접 불을 쬔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X) 동상으로 손상된 부위는 조직들의 감각이 둔화하여 뜨거운 열을 못 느끼고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동상 부위의 물집은 빨리 터뜨리는 것이 좋다?
(X) 물집이 터지면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는 절대 터뜨리거나 손대지 말고 멸균소독이 가능할 때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농업인 교육

2023년 농업인 교육을 안내합니다. 교육 신청은 과정별 교육개시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거주 주소지 관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100% 시·군 추천 선발, 개인별 인터넷 신청 불가). 교육 신청 자격은 도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6	27	28	1	2	3	4
5	6 ① 농업인 무인(드론)방제기	7 ② 모바일 홈페이지 및 스마트스토어 제작	8	9	10	11
12	13	14 ③ 귀농인 농촌생활기술 (1기)	15	16 ④ 시설딸기	17	18
19	20 ⑤ 기계화 영농사 (1기) ⑥ 탄소 순환농업	21	22	23	24	25
26 ⑥ 기계화 영농사 (1기)	27 ⑦ 아열대 채소	28	29	30	31	

3월

① 농업인 무인(드론)방제기

접수기간: 2월 6일 ~ 20일
교육기간: 3월 6일 ~ 7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최첨단 드론방제기를 이용한 영농현장 방제 및 안전한 비행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32

② 모바일 홈페이지 및 스마트스토어 제작

접수기간: 2월 7일 ~ 20일
교육기간: 3월 7일 ~ 9일 (교육시간 2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30시간 이상 컴퓨터 이수자에 한함)
교육내용: 모바일 트렌드 이해,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기, 모바일 쇼핑물 디자인 제작, 쇼핑물 사진 촬영, 스마트스토어 제작 등
교육문의: 061-330-2736

③ 귀농인 농촌생활기술 (1기)

접수기간: 2월 14일 ~ 28일
교육기간: 3월 14일 ~ 16일 (교육시간 2시간)
교육대상: 도내 전입한 5년 미만 귀농인
교육내용: 농사 실습, 텃밭 및 정원 가꾸기, 집짓기와 자가수리 기능 생애 건축 기술, 목공·용접 등 생활 활용 기술 등
교육문의: 061-330-2736

④ 시설딸기

접수기간: 2월 16일 ~ 3월 1일
교육기간: 3월 16일 ~ 17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딸기 육묘 환경 및 정식관리, 딸기 병해충 특성 및 방제기술, 가공·선별·포장 및 출하, 재배포장 및 선도농가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4

⑤ 기계화 영농사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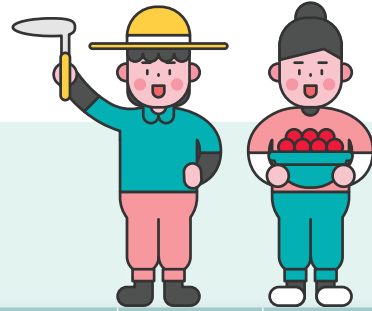
접수기간: 2월 20일 ~ 3월 6일
교육기간: 3월 20일 ~ 3일 (교육시간 70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30명
교육내용: 영농현장 농작업기 운영 중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32

⑥ 탄소 순환농업

접수기간: 2월 20일 ~ 3월 6일
교육기간: 3월 20일 ~ 22일 (교육시간 2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국제 동향, 농사와 탄소순환 토양건강과 탄소, 탄소를 가두는 도시농부, 선도농가 현장학습 등
교육문의: 061-330-2725

⑦ 아열대 채소

접수기간: 2월 27일 ~ 3월 13일
교육기간: 3월 27일 ~ 29일 (교육시간 2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채소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기술, 재배포장 및 선도농가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① 시설토마토	4 ② 우리밀과 쌀 제과·제빵	5	6 ③ 무인 자율주행 (1기)	7	8
9	10	11	12	13 ④ 굴착기 지게차 스kid로더 ⑤ 커피	14	15
16	17	18 ⑥ 치유농업	19	20	21	22
23 / 30	24 ⑦ 콩	25	26	27 ⑧ 농작업기계 전기용접 (1기)	28	29

4월

① 시설토마토

접수기간: 3월 3일 ~ 20일
교육기간: 4월 3일 ~ 4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토마토 파종·육묘 및 정식, 시설토마토 재배 및 생산관리 기술, 가공 및 선별·마케팅 관리, 재배포장 및 선도농가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4

② 우리밀과 쌀 제과·제빵

접수기간: 3월 3일 ~ 20일
교육기간: 4월 5일 ~ 7일 (교육시간 2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우리밀과 쌀 품종별 특성 및 가공적성 이해, 제과·제빵 실습, 선도농가 사례발표 및 현장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5

③ 무인 자율주행 (1기)

접수기간: 3월 6일 ~ 22일
교육기간: 4월 6일 ~ 7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친환경 유기농업 방향, 무인 자율주행 기초이론 및 무인 트랙터, 승용이앙기 자율주행 프로그램 설정, 농작업 현장실습 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32

④ 굴착기 지게차 스kid로더

접수기간: 3월 13일 ~ 29일
교육기간: 4월 13일 ~ 14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 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영농현장 안전한 중장비(지게차, 굴착기, 스kid로더) 운영과 농업인 영농경영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32

⑤ 커피

접수기간: 3월 13일 ~ 29일
교육기간: 4월 13일 ~ 14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커피 품종의 이해, 커피 파종·육묘 및 정식, 커피 재배 및 생산관리 기술, 커피 가공법, 재배포장 및 선도농가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4

⑥ 치유농업

접수기간: 3월 17일 ~ 4월 4일
교육기간: 4월 19일 ~ 20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의 국내외 사례, 치유농장 조성 방법 및 운영 사례, 선도농가 현장 교육 및 체험 등
교육문의: 061-330-2725

⑦ 콩

접수기간: 3월 24일 ~ 4월 10일
교육기간: 4월 24일 ~ 25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콩 파종·육묘 및 정식, 논콩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 병해충 및 잡초방제, 재배포장 및 선도농가 견학 등
교육문의: 061-330-2724

⑧ 농작업기계 전기용접 (1기)

접수기간: 3월 27일 ~ 4월 12일
교육기간: 4월 27일 ~ 28일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25명
교육내용: 전기용접기 기초이론, 전기용접기를 이용한 편철, 파이프 용접 11 현장실습 교육 등
교육문의: 061-330-273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식품 수출확대 성과보고회' 개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022년 농식품 수출확대 성과보고회'를 수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2년 한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수출지원(연구·보급 사업) 등 전반적인 수출 관련 사업과 2023년도 수출 규모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세계무역기(WTO) 협정으로 2024년부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물류비 지원을 대체할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022년 22개 사업에 2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32억 6천여만 원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문의 | 자원경영과 홍우진 연구사(061-330-2593)

가공유통팀, 전국 '최우수 전문연구실상' 수상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전문연구실 연구성과 평가 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가공유통팀이 최우수 전문연구실상을 수상하였다. 가공유통팀의 최우수 전문연구실상을 수상은 2022년도 농업 과학기술 포상계획에 따라 전국 159개 전문 연구실 중에서 연구실적과 지역농업 기여도 등을 평가한 결과이다. 가공유통팀은 지난 3년간 지역소득 창출형 가공기술 개발 사업화를 위하여 특허기술 12건, 농산업체 기술이전 51건, 기술사업화 5건, 가공업체 현장 방문 컨설팅 340회 등 전라남도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과 상품화는 물론 수출까지 성공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마경철 팀장(061-330-2511)



두원농협과 '흑하랑 상추-유자' 콜라보 진행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고충 두원농협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흑하랑-유자 콜라겐 젤리스틱 제품의 시범유통과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흑하랑 상추와 유자 혼합 비교우위 가공제품 다양화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양 기관이 협업체 개발한 '흑하랑-유자 콜라겐 젤리스틱'은 지난해 8월부터 유효성분을 함유한 추출농축액 제조, 유자 부재료 선별 및 적정 혼합 레시피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 출시된 제품이다.

문의 | 원예연구소 장서우 연구사(061-330-2542)



올해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123억 원 투입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국비 123억 원을 투입, 시군농업기술센터를 과학영농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등 과학 영농시설 구축 41억 원, 다양한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영농현장 기술보급 시설 53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문의 | 농촌지원과 박춘심 지도사(061-330-2752)



올해 '농업기술 개발 전략' 수립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이 농산 업의 핵심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디지털 농업 관련 기술개발 보급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올해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농업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과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 전남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 전남형 신품종 개발·보급 및 지역특화 품목 육성, 농식품 국내판매 활성화와 수출시장 개척, 농산자원 이용 메디 푸드 가공제품 개발 및 치유농업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문의 | 친환경농업연구소 손창환 팀장(061-330-2571)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경진대회' 전 분야 수상

농촌진흥청 주관 '스마트농업 성과보고회'에서 빅데이터 경진대회, 스마트혁신 우수성과 및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 공동 현장활용 경진대회 전 분야 에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정보팀 조경철 연구사 등이 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농업 연구개발·보급 및 우수성과 공유· 확산 촉진,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 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해 스마트농업 발전과 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문의 | 자원경영과 조경철 연구사(061-330-2592)



유자 부산물 이용 '젤리 제품' 개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최근 유자차 등 가공제품의 수출 인기에 힘입어 유자를 활용한 젤리 제품을 개발해 선보였다. 유자즙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유자박은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폐기되거나 극히 일부는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이러한 유자 부산물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유자박에서 추출한 추출액을 이용해 젤리 제품인 '유자톡 브레인'을 개발하였다.

문의 | 과수연구소 이보배 연구사(061-880-8018)



유자씨 오일 첨가 '샐러드용 소스' 개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 지역 특화작목인 유자를 활용한 '샐러드용 소스'를 개발해 선보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 내 유자 가공 공장에서 유자차 등 가공제품 제조 시 연간 2,500~2,800톤의 유자씨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유자 과실의 30~35%를 차지하는 유자씨에서 오일을 추출하여 소스 소재로 탈바꿈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샐러드용 소스는 주재료인 유자과즙, 유자청에 유자씨 오일을 첨가해 유자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렸다.

문의 | 과수연구소 이보배 연구사(061-880-8018)



숙면효과 기능성 상추 '흑하랑' 산업화 나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천연 소재로 숙면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 품종으로 수면건강제품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흑하랑은 전라남도농업 기술원에서 8년간의 연구 끝에 2019년 등록을 마친 품종으로, 정신 건강과 수면효과가 있는 락투신 성분(3.74mg)이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 풍부하다. 흑하랑은 기능성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일반 상추 대비 1.5~8.5배 높은 단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가공 원료화에 따른 일사수확으로 노동력을 25% 줄여줘 농가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의 | 원예연구소 장서우 연구사(061-330-2542)



자연을 닮은 완도 '황칠잎차' 개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완도황칠융복합사업단의 위탁을 받아 젊은 소비자 들의 기호에 맞는 '황칠잎차'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였다. 고급 천연 도로로 사용되었던 황칠은 최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황칠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기능 성분과 기호성이 향상된 황칠잎차와 블렌딩 차를 개발해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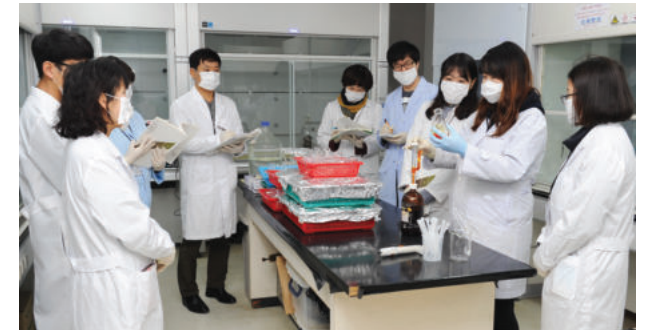
문의 | 차산업연구소 정미진 연구사(061-850-2705)



농촌진흥사업 전국 '우수기관상' 수상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주관 '2022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전국 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기술보급사업 종합만족도 등 9개 지표에 대한 농촌진흥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기관 1개소, 우수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22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현장밀착형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스마트농업 연구개발·보급,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의 | 농촌지원과 이정훈 지도사(061-330-2753)



'과학영농 기술지원 혁신 최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주관 '식량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과학영농 기술지원 혁신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올해 처음 시상하는 분야로, '농업을 스마트하게, 농촌을 매력 있게' 바꾸기 위해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전문인력 육성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여수시 등 12개 시군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확대 구축 등의 노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문의 | 기술보급과 박진영 팀장(061-330-2771)



보성 '호지차 분말' 미국 아마존 2차 수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보성 보림제다(주) 농업회사법인에서 생산한 '호지차 분말' 500kg을 미국 온라인 종합 쇼핑몰인 아마존에 수출하였다. 고소 하고 짭은맛이 적은 호지차는 다른 식품과의 블렌딩이 용이하기 때문에 식음료업체에서 가공 소재로 활용하여 호지차를 이용한 밀크티, 빵, 푸딩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카페인 함량이 낮아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층과 어린이의 섭취도 가능해 시장 확대는 물론, 차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차산업연구소 김은혜 연구사(061-850-2707)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농업기술원지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농업기술원지부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나누시 독거어르신 등 2가구에 연탄(사랑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농업기술원지부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한 톨, 두 톨 모은 성금으로 연탄 1,000장을 구입해 직접 배달에 나섰다. 매년 농업기술원지부에서는 전라남도 내 독거어르신 등 불우이웃시설에 생필품과 쌀 등을 2~3차례 꾸준히 기부해 왔다.

문의 | 농촌지원과 이정훈 지도사(061-330-2753)

독자마당



독자엽서에 이번 호 퀴즈 정답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을 읽은 소감이나 알고 싶은 농업정보 등을 적어 3월 10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독자엽서를 보내신 분 중 30명을 선정해 '표고버섯 스낵', 또는 '오곡누룽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Quiz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이 2023년 신년사에 밝힌 '전라남도의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은 모두 몇 개의 분야일까요? (6페이지 '신년사' 참조)

① 7 ② 8 ③ 9 ④ 10

*22년 11·12월호 설문조사 당첨자

담양군 '담청랩' 딸기잼 / 15명

이*채(나주시 서부로), 곽*기(나주시 빛가람동), 윤*정(나주시 호수로), 김*미(곡성군 곡성읍), 최*자(완도군 순외면), 공*순(여수시 장군단길), 정*례(광주시 남구) 조*임(경기 고양시), 박*원(광주시 서구), 백*용(대구시 달서구), 김*곤(보성군 벌교읍), 기*서(장성군 황룡면), 이*용(신안군 지도읍), 이*숙(장흥군 장흥읍), 김*지(전북 진안군)

해남군 '다모식품' 고구마 말랭이 / 15명

윤*순(광주시 남구), 이*주(광주시 광산구), 이*창(나주시 한빛로), 위*아(나주시 남평읍), 유*대(나주시 중앙길), 노*영(목포시 통일대로), 양*연(여수시 여서로), 송*찬(광주시 광산구), 정*신(나주시 왕곡면), 황*태(고흥군 도양읍), 오*윤(경기 용인시), 김*순(광주시 북구), 김*호(순천시 해룡면), 전*숙(충남 아산시), 한*이(목포시 용당로)

독자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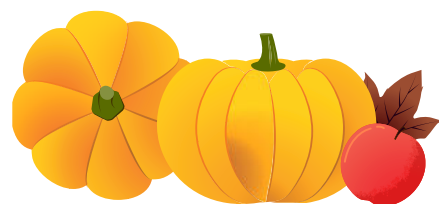
15명

강진군
'민음영농조합법인'
표고버섯 스낵



15명

순천시
'쌍지돌 전통식품(주)'
오곡누룽지



참여방법

독자엽서 뒷면의 모든 문항에 표시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발표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3·4월호 독자마당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

2023 국제농업 박람회

기간 2023. 10. 12.(목) ~ 10. 22.(일)/11일간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옆)

주최·주관 전라남도/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재단

후 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단체

도전하는 청년농업인
전라남도의 내일을 열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자원경영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우)58213 TEL. 061. 330. 2597



9 772799 895006

ISSN 2799-8959

02